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 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

趙顯福*

目 次

- | | |
|--------------------|---------------|
| I. 序 言 | III. 段階設定과 編年 |
| II. 土器分析과 型式分類 | 1. 段階設定 |
| 1.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分析 | 2. 編 年 |
| 2. 土器의 型式分類 | IV. 結 言 |

I. 序 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櫛文土器 遺蹟에 대한 發掘調査는 南部海岸地方, 西海中部海岸地方, 漢江流域, 大洞江流域, 東北海岸地方, 鴨綠江下流域, 豆滿江流域 등 비교적 발견이 용이한 地域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南部地方에서는 주로 釜山·金海를 중심으로 하는 海岸島嶼地方의 諸 貝塚 遺蹟이 주된 調査 對象地였고, 嶺南 內陸地方의 諸 遺蹟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地表調査 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을 뿐이다¹⁾. 그런데 최근 陝川댐 建設工事로 인하여 居昌郡 南下面, 陝川郡 鳳山面 一帶의 陝川댐 水沒地域에 대한 大規模 發掘調査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新石器時代 櫛文土器 遺蹟²⁾이 調査됨에 따라 그

* 東義大學校博物館 學藝研究員

1) 이와 관련된 論文과 報告文은 아래와 같다.

- ① 安春培, 「南江 上流의 先史文化 研究」 『白山學報』 23, 1977.
- ② _____, 「山淸 江樓里 先史 遺蹟」 『釜山市立博物館年報』 4, 1982.
- ③ 趙榮濟, 「西部 慶南 先史文化 地表調査 報告(I)」 『釜大史學』 7, 1983.
- ④ 張明洙, 「蟾津江下流의 貝塚文化」 『古文化』 34,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6, 6.
- ⑤ _____, 「鏡湖江流域 出土 先史遺物 新例에 대한 小考」 『博物館紀要』 5, 1989.
- ⑥ 趙由典, 「慶南地方의 先史文化 研究」 『考古學』 5·6, 1979.
- ⑦, _____ 「南江 流域의 先史文化 研究 - 山淸 江樓里 先史遺蹟의 性格 - 」 『韓國考古學報』 20, 1987.

- 2) ① 林孝澤·郭東哲·趙顯福, 「大也里 住居址」 I, 東義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2, 1988.
- ② _____, 「大也里 住居址」 II, 東義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3, 1989.
- ③ 沈奉謹, 「陝川 鳳溪里 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第15冊, 1989.
- ④ 安春培, 「居昌 壬佛里 先史 住居址 調查概報(I)」 『嶺南考古學』 6, 1989.

동안 다소 불명확했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性格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筆者는 최근의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에 힘입어 그동안 다소 불명확했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의 位置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지역 新石器時代 櫛文土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간헐적인 地表調査 등을 통해서 채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遺蹟 내지는 資料 紹介정도의 단편적인 考察에 머물렀고 체계적인 研究分析 作業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들어 새로운 자료가 속속 報告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問題에 대한 새로운 論文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들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金海 水佳里 貝塚의 編年을 재검토하면서 水佳里 II 期에 해당하는 新石器時代 後期를 前葉, 中葉, 後葉으로 세분하고 壬佛里와 鳳溪里등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를 新石器時代 後期 이후의 段階로 編年한 것이 있다³⁾.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口緣部에 文樣 空白部가 生成되기 시작하는 段階를 後期前葉, 口緣部에 文樣 空白部가 生成된 段階를 後期中葉, 文樣帶의 幅이 축소되는 段階를 後期後葉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 중 後期中葉과 後期後葉의 변화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後期前葉과 後期中葉의 分類는 그 기준을 잡는데 있어서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鳳溪里 出土品⁴⁾(圖面 2-⑨), 江樓里 出土品⁵⁾(圖面 3-⑥)을 新石器時代 後期中葉의 時期로 파악한 것은 筆者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은 南部內陸地方 櫛文土器를 分析하고 이를 南海岸地方의 貝塚 遺蹟에서 검출된 즐문토기와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토기를 모두 5期로 編年한 것이 있다⁶⁾. 그런데 이 編年 중 第 I, IV, V 期에 대해서는 筆者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第 II, III 期에 대한 編年觀은 筆者의 생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즉, 이 編年案의 研究者는 第 II 期를 I 期와 III 期の 과도기적인 段階로 보았는데, 第 II 期는 口緣部가 직립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되는 등 第 I 期の 특징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그런데 第 III 期는 口緣部가 外反하거나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되는 특징을 가진 즐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단계로서 第 II 期の 즐문토기는 第 III 期の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第 II 期를 과도기적인 단계로 설정하는데는 다소 의문이 있고 第 III 期도 그 시기의 폭이 크기 때문에 文樣의 施文幅 및 退化정도에 따라 또 하나의 段階로 세분될 여지가 있다.

이상의 두 論文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編年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小稿에서도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

3) 廣瀨雄一, 「韓國南部地方櫛目文後期の變遷」 『九州考古學』 64, 1989.

4)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 27, 圖面 4 - ③ 參照.

5) 趙由典, 註 1) - ⑦ 前掲文, p. 41, 그림 4 參照.

6) 李東注, 「韓國 南部內陸地域의 新石器時代 有紋土器研究」, 東亞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0.

입은 바 크다. 그리고 이들 두 論文은 비록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近年의 發掘 成果와 既存 資料의 分析을 통해서 볼 때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遺物의 개개 屬性에 의한 명확한 型式分類 없이 編年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먼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遺物의 개개 屬性에 의한 型式分類를 시도하였다. 다음은 型式分類에 의해 제시된 各 類型을 바탕으로 段階를 設定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的 位置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本 研究를 시도하게 되었다.

Ⅱ. 土器의 分析과 型式分類

1.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分析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器形은 밑이 뾰족하거나 둥근 尖底 혹은 丸底形의 深鉢形, 鉢形 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⁷⁾, 그밖에 壺形土器가 약간씩 검출되고 있다.

深鉢 내지 鉢形土器에는 구연부의 형태가 홀구연인 것과 겹(이중)구연인 것이 있는데, 홀구연은 다시 구연부가 직립된 것과 외반된 것 등 크게 두종류로 兩分되지만 세부적으로는 직립한 것, 내경한 것, 끝만 살짝 외반한 것, 서서히 외반한 것, 급격히 외반한 것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口緣部 形態가 直立된 것은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일반적인 구연부 형태이지만 外反된 것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特徵的인 要素 중에 하나로 南海岸地方에서 보다는 嶺南內陸地方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는 구연부 형태이다. 겹(이중)구연토기는 구연부 끝을 따라 돌아가면서 별도의 粘土帶를 덧붙인 형태를 가진 것인데, 부착된 粘土帶의 斷面은 대개 長三角形, 逆三角形, 長方形, 橢圓形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粘土帶의 모양은 넓은 것, 좁은 것, 들출이 심한 것, 납작한 것, 胴體 連結部 사이의 段을 없애 버리고 그 흔적만 남긴 것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壺形土器(圖面 12)는 거의 대부분 口緣部片이고 비교적 全體 器形을 알 수 있는 자료는 居昌 大也里 出土品(圖面 12-⑦,⑨) 뿐이다. 居昌 大也里 出土 壺形土器⁸⁾는 胴上部에 把手가 각각 부착되어 있고 口頸部는 胴上方에서 약간 내만 기미로 거의 직립한 것, 서서히 내만한 것 등 두종류가 있다. 그리고 口緣部는 外反된 것과 直立한 것이 있으며 口脣은 편평한 것, 뾰족한 것 등 두종류가 있다. 그밖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遺蹟에서는 모두 口頸部片만 검출되어 全體 器形은 거의 알 수 없지만 殘存해 있는 口頸部片의 形態, 口頸部에 施文된 文樣手法 등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居昌 大也里 出土 壺形土器(圖面12-⑦~⑨)와 거의 유사

7) 嶺南內陸地方의 諸 遺蹟에서는 底部片의 경우 전부 尖底 내지 丸底形이고 平底形의 底部片은 검출된 바 없다.

8) 林孝澤 外, 註 2) -② 前掲書, pp.108~110 參照.

<表 1> 居昌 大也里 遺蹟 出土 遺物 說明表

一連番號	圖面番號	遺物說明
1	3-③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으로 胎土는 砂質性 粘土를 사용하였고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菱形集線文이 시문되어 있는데 文樣 시문시 처음과 끝을 꼭눌러 마무리 한 까닭에 시문된 양끝이 비교적 깊게 패여 있으며 凹面도 깊고 정연한 편이다. 寸고 10.1cm, 두께 0.8cm.
2	4-③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으로 구연부끝이 살짝 外反된 상태이다. 粘土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淡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3~4烈의 平行點烈文이 施文되어 있다. 寸고 13.5cm, 두께 1.0cm.
3	5-⑤	거의 直立된 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粘土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4烈의 平行點烈文이 施文되어 있다. 寸고 9.3cm, 두께 1.1cm.
4	6-②	外反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胎土는 粘土性이며 色調는 淡褐色을 띠고 있다. 그리고 文樣은 菱形集線文이 시문되어 있다. 寸고 7.9cm, 두께 0.6cm.
5	7-③,⑥,⑦	모두 外反口緣을 가진 口緣部片이다. 모두 砂質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1點은 黑褐色, 2點은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모두 口緣部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施文되어 있는데 圖面7-③은 斜格子文, 나머지는 鳥羽形文이 施文되어 있다. 寸고 13.2cm, 4.2cm, 5.6cm, 두께 0.9cm, 0.7cm, 0.7cm.
6	9-⑤	끝이 살짝 外反된 口緣部片이다. 粘土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口緣部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5烈의 短斜線文이 비교적 조잡하게 施文되어 있다. 寸고 6.5cm, 두께 0.7cm.
7	10-④	直立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胎土는 粘土性이고 色調는 淡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2烈의 鋸齒文이 施文되어 있다. 寸고 8.0cm, 두께 0.9cm.
8	11-④	二重口緣土器의 口緣部片으로 덧붙힌 粘土帶의 斷面은 逆三角形을 이루고 있다. 粘土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外面은 黑褐色 內面은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斜格子文이 시문되었는데 시문된 凹面이 비교적 얇은 것이 특징이다. 寸고 6.3cm, 두께 0.8cm.
9	12-⑨	半破된 壺形土器片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胴上方에 把手가 각각 부착되어 있고 口頸部는 胴上方에서 약간 내만기미로 거의 직립하다가 口緣部에 이르러 서서히 外反된다. 胎土는 고운 粘土를 사용하였고, 色調는 淡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口頸部를 따라 일정한 폭으로 지그재그문이 시문되어 있다. 寸고 14.8cm, 두께 0.5cm.
10	13-⑦,⑨	모두 外反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胎土는 모두 砂質性이며 色調는 淡褐色, 暗褐色을 띠고 있다. 그리고 圖面13-⑦은 桴과상의 退化斜格子文, 圖面13-⑨는 菱形集線文이 각각 施文되어 있다. 寸고 4.8cm, 8.1cm, 두께 0.8cm.
11	13-⑫,⑬	모두 胴部片으로 정확한 器形은 알 수 없다. 모두 粘土性 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지그재그문과 變形短斜線文이 각각 施文되어 있다. 두께 0.6cm, 0.7cm.

한 器形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胎土는 가는 石粒, 雲母와 石英 등이 混在된 粘土性과 細砂質로 된 砂質性 두종류가 있는데, 砂質性 胎土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文樣은 施文部位에 따라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문양이 施文된 것과 口緣部끝에서 2~3cm 가량의 空白를 띄우고 문양이 施文된 것 등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施文手法에 따라서는 토기 표면에 多齒具나 單齒具를 이용하여 누르거나 눌러 당겨 문양을 시문한 押引文系, 끝이 삼각상으로 뾰족하거나 양끝만 뾰족한 施文具로 토기 표면을 연속적으로 찍어 시문한 刺突文系, 토기 표면에 線을 그어 시문한 것 가운데 文樣의 施文幅이 넓거나 凹面의 깊이가 깊고 정연하게 시문된 沈線文系, 文樣施文幅이 좁고 조잡하게 시문된 退化沈線文系 등 모두 4종류로 세분된다.

文樣의 形態에 따라 분류해 보면, 押引文系에는 押引系短斜線文, 押引系短斜線文과 橫走魚骨文이 結合된 것, 押引系橫走魚骨文, 押引系爪文 등이 있고, 刺突文系에는 點烈文, 點烈線文, 竹管文, 지그재그문 등이 있으며, 沈線文系에는 菱形集線文, 三角集線文, 縱走集線文, 斜格子文, 鳥羽形文, 魚骨文 등이 있다. 그리고 退化沈線文系에는 長斜線文, 短斜線文, 鋸齒文, 退化斜格子文, 退化短斜線文 등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다.

文樣 形態別 特徵을 살펴보면, 押引系短斜線文은 모두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시문되어 있다. 施文手法은 모두 多齒具로 押引하여 시문하였는데, 各 斜線과의 간격이 넓은 것과 좁은 것, 施文된 短斜線이 굵은 것과 얇은 것 등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押引系短斜線文과 橫走魚骨文이 결합된 것은 口緣部끝에서 底部까지 문양이 시문된 器全面施文土器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陝川 鳳溪里 遺蹟에서는 上部에 橫走魚骨文이 下部에 押引系短斜線文이 시문되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⁹⁾ (圖面 15-③)도 검출된 바 있다.

押引系橫走魚骨文은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길이 3.5cm정도의 押引斜線을 상호 엇갈리게 3렸을 橫走시킨 것(圖面 2-⑥)인데 전술한 押引系短斜線文과 橫走魚骨文이 결합된 것과는 달리 口緣部에만 한정되어 文樣이 施文된 特徵을 보여 주고 있다.

押引系爪文(圖面 2-⑧, ⑨)은 모두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시문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끝이 뾰족한 施文具로 토기 표면을 처음에 꼭 눌렀다가 뗄 때 약간 앞으로 당기면서 밀었기 때문에 시작 부분은 凹面이 깊은 반면에 종결 부분은 비교적 凹面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點烈文은 文樣形態에 따라 波狀點烈文과 平行點烈文 등 2종류로 나누어진다. 波狀點烈文은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2열의 點烈을 橫으로 평행되게 찍어 돌리고 그 아래에 다시 ‘~’ 모양의 점열을 서로 교차되게 연속적으로 찍어 시문한 것인데, 南海岸地方에서는 新石器時代

9)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 50 參照.

<表 2> 晉陽 上村里 中村洞 遺蹟 出土 採集 遺物 說明表

一連番號	圖面番號	遺物說明
1	2-①~③	모두 直立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인데 圖面2-②만 粘土性 胎土이고 나머지는 砂質性 胎土를 가진 것이다. 色調는, 圖面2-①은 黑褐色이고 나머지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모두 구연부끝에서 곧바로 押引系短斜線文이 施文되어 있다. 특히 圖面2-①은 시문시 처음에 꼭 눌렀다가 종결시 다시 꼭 눌러 시문하였기 때문에 양끝부분이 비교적 깊게 패여 있다. 잔고 4.0~4.7cm, 두께 0.7~0.8cm.
2	2-⑤,⑦	모두 鉢形土器의 胴部片으로 器上部에는 押引系短斜線文, 그 下部에는 橫走魚骨文이 複合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모두 砂質性 粘土이며 色調는 각각 黑褐色, 暗褐色을 띠고 있다. 두께 0.7cm, 0.8cm.
3	3-①,②	모두 直立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胎土는 砂質性 粘土이며 色調는 각각 暗褐色과 茶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모두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시문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데 圖面3-①은 2烈의 點烈을 서로 平行되게 口緣部를 따라 돌린 후 그 아래에 다시 “~”모양의 波狀點烈文을 서로 교차되게 연속으로 시문하였는데 圖面3-②는 口緣部 끝에 7~8烈의 點烈文을 서로 平行되게 시문하였는데 시문구 끝을 아래에서 부터 위로 비스듬하게 찍어 시문하였기 때문에 윗쪽이 비교적 깊이 패여 있다. 잔고 4.4cm, 4.3cm 두께 0.6cm, 0.7cm.
4	3-④,⑤	直立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이다. 胎土는 모두 砂質性 粘土이며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각각 菱形集線文, 二重菱形文이 施文되어 있다. 잔고 5.4cm, 7.6cm 두께 0.8cm.
5	8-⑥	壺形土器의 口頸部片이다. 胎土는 고운 粘土를 사용하였고 色調는 明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口頸部를 따라 일정한 폭으로 縱走集線文이 시문되어 있는데 시문된 凹面의 깊이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잔고 4.9cm 두께 0.8cm.
6	11-①,②	二重口緣土器의 口緣部片으로 모두 가는 석립이 약간 섞인 粘土를 胎土로 사용하였다. 色調는, 圖面11-①은 內外面 모두 暗褐色이나 圖面11-②의 內面은 明褐色이고 外面은 灰褐色인데 부분적으로 흑반이 잘 남아 있다. 文樣은 縱走點烈線文과 斜格子文이 각각 施文되어 있다. 잔고 3.0cm, 5.2cm 두께 0.5cm, 0.7cm.
7	16-①~③	外反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으로 圖面16-②만 粘土性胎土이고 나머지는 모두 砂質性胎土를 사용하였다. 色調는, 圖面16-②는 明褐色이고 나머지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모두 斜格子文이 시문되어 있다. 잔고 6.3~7.2cm 두께 0.8~1.0cm.
8	16-④	直立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片으로 砂質性 胎土를 사용하였고 色調는 暗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押引系短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다. 잔고 5.6cm 두께 0.9cm.
9	16-⑤~⑨	모두 砂質性粘土를 胎土로 사용하였고 色調는 圖面16-⑤는 灰褐色, 圖面16-⑥,⑨는 暗褐色, 圖面16-⑦,⑧은 黑褐色을 띠고 있다. 文樣은, 圖面16-⑥,⑨는 平行點烈線文 나머지는 모두 平行點烈文이 시문되어 있다. 잔고 4.1~8.5cm 두께 0.6~0.7cm.

初期遺蹟인 欲知島¹⁰, 朝島貝塚¹¹ 등에서 이와 유사한 特徵을 가진 문양이 약간 보인다. 平行點烈文에는 文樣의 施文部位에 따라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것과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운 다음 문양이 시문된 것 등 2종류가 있는데, 前者는 後者에 비해 비교적 施文幅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點烈線文은 끝이 삼각상으로 뾰족하거나 양끝만 뾰족한 施文具로 2~4열가량 연속적으로 찍어 마치 線처럼 이어가며 토기 들레를 돌린 무늬인데, 文樣形態에 따라서는 平行點烈線文과 縱走點烈線文 등 2종류로 나누어진다. 이들 文樣은 모두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施文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平行點烈線文의 경우는 深鉢 내지 鉢形土器의 文樣으로 채용되고 있는 반면에 縱走點烈線文은 주로 壺形土器나 椀(이중)구연토기의 문양(圖面 11-①)으로 채용되고 있다.

지그재그문은 그 명칭이 之자문, W자형거치문, 之자형빗살무늬, 之자형빗점무늬, 바구니문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之자문 혹은 지그재그문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문양은 渤海沿岸의 新石器時代 初期遺蹟¹²에서 주로 유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南部地域에서는 水佳里¹³, 上老大島¹⁴, 東三洞¹⁵, 大也里¹⁶(圖面12-⑦~⑨), 沙坪洞¹⁷ 그리고 西北地域에서는 美松里¹⁸에서 각각 검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南部地域에서 검출된 지그재그문토기는 거의 대부분 壺形土器의 頸部에 양끝이 돌출한 시문구를 사용하여 縱方向을 따라 여러 줄 지그재그로 아주 정교하게 시문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渤海沿岸에서 검출된 지그재그문 토기는 거의 대부분 鉢形土器의 胴部에 비교적 施文幅이 넓게 지그재그로 굵거나 찍어 시문한 것으로 우리나라 南部地方 出土 지그재그문토기와는 器形및 施文方法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調査된 資料를 통하여 볼 때, 이들 두 지역에

-
- 10) 國立晉州博物館, 『欲知島』, 遺蹟調査報告3, 1989, pp.125~127 參照.
- 11) 鄭澄元, 「南海岸地方 初期 櫛文土器의 一檢討 - 朝島貝塚 出土品을 中心으로 -」 『嶺南考古學』 7, 1990, pp.14~15 參照.
- 12) 여기에 관련된 論文은 아래와 같다.
- ① 小川靜夫, 「樞東先史土器の一考察」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紀要』 1, 1982.
- ② 宮本一夫,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史林』 66-2, 1985.
- ③ 白弘基, 「韓半島北部와 遼寧半島地域의 平底土器研究」, 檀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6.
- ④ 任孝宰, 「新石器時代 韓國과 中國遼寧地方과의 關係性에 대하여」 『韓國 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⑤ 李亨求, 「渤海沿岸의 빗살무늬土器文化의 研究」 『韓國史學』 1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9.
- ⑥ 千葉基次, 「中國遼寧地域의 連續弧線文系土器」 『東北アジアの考古學』, 田村光一編, 1990.
- 13) 鄭澄元, 林孝澤, 申敬澈, 『金海 水佳里 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 pp.87~88 參照.
- 14) 손보기, 『상노대도의 선사시대살림』, 연세대학교박물관 선사문화연구소, 1982.
- 15)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의 研究」,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3, 1962, 圖面 XL-14 參照.
- 16) 林孝澤 外, 註 2) - ② 前掲書, pp.108~110 參照.
- 17) 張明洙, 註 1) - ⑤ 前掲文, 그림 3 參照.
- 18) 김용간, 「미송리 동굴 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3, 1963.

서 검출된 지그재그문토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전술한 지그재그문이 주로 渤海沿岸의 新石器時代 初期 遺蹟에서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菱形集線文은 嶺南內陸地方의 全 遺蹟에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문양 형태에 따라 두종류로 나누어진다. 먼저 처음에 土器表面을 꼭 눌러서 點을 만든 후 여기서부터 線을 그어 종결시 다시 꼭 눌러 施文한 것(圖面 3-③)인데, 이러한 施文手法은 金海 水佳里 貝塚 第Ⅴ層 出土 遺物¹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施文部位에 먼저 마름모꼴의 線을 區劃 한 뒤 그 안에 다시 斜線을 그어 菱形集線文을 시문한 것(圖面 6-③, ④)인데 이러한 施文手法은 전술한 전형적인 菱形集線文에서 다소 변화된 것으로 陝川 鳳溪里 遺蹟²⁰⁾에서만 검출되고 있다.

三角集線文은 鳳溪里²¹⁾(圖面 6-⑤, ⑥)과 大也里²²⁾에서 각각 검출되고 있는데, 外反口緣을 가진 鉢形土器의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운 다음 문양이 시문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斜格子文은 嶺南內陸地方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數量面에 있어서도 비교적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는 편이다. 施文部位에 있어서는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것과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것 등 두종류로 나누어 지는데,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量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들 문양이 겹(이중)구연토기의 문양으로도 채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것은 타 지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주로 嶺南內陸地方 諸 遺蹟에서 多出하고 있다. 이러한 斜格子文이 施文된 겹(이중)구연토기는 長斜線文이 施文된 겹(이중)구연토기와 함께 新石器時代 晚期 중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 겹(이중)구연토기의 始原을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鳥羽形文은 文樣形態가 새의 깃털을 닮았다고 하여 命名된 것으로 嶺南內陸地方에서 주로 많이 검출되고 있다. 嶺南內陸地方에서는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것과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것 등 두종류가 검출되는데, 後者의 型式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文樣은 南海岸地方의 경우 突山 松島 貝塚에서만 그 出土例²³⁾이 있을 뿐 다른 遺蹟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곳 嶺南內陸地方에서 독특하게 변화 발전된 형식의 하나로 추정된다.

魚骨文에는 橫走魚骨文과 縱走魚骨文 등 두종류가 있는데, 橫走魚骨文은 單獨文樣의 경우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되지만 複合文樣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

19)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 112~121 參照.

20)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p. 26~28, pp. 138~141 參照.

21)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p. 86~87 參照.

22) 林孝澤 外, 註 2-②)의 前掲書, 插圖 31의① 參照.

23) 國立光州博物館, 『突山 松島』Ⅱ, 1990, pp. 58~59, 그림 26의① 參照.

이 모두 押引系短斜線文의 下部文樣으로 채용되고 있다. 縱走魚骨文은 陝川 鳳溪里 遺蹟²⁴⁾(圖面 8-⑦)에서 유일하게 검출된 바 있는데, 南部地方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문양으로 西海岸地域에서 주로 檢出되고 있는 文樣이다.

鋸齒文, 長·短斜線文은 모두 전형적인 太線集線文이 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鋸齒文은 大也里(圖面10-④), 鳳溪里²⁵⁾(圖面10-⑥), 長·短斜線文은 嶺南內陸地方 全 遺蹟에서 비교적 골고루 검출되고 있다. 특히 鋸齒文은 홀구연토기의 문양으로만 채용되지만 長·短斜線文은 홀구연토기는 물론 겹(이중)구연토기의 문양으로 채용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器形, 施文手法, 文樣의 形態面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토기는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の 生成” “點烈文系統 文樣의 急增” “砂質性 胎土” 등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는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같은 時期에 있어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鰲山里遺蹟²⁶⁾의 경우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 存在” 등 유사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이들 櫛文土器는 전체적인 器形이 平底形의 底部를 가진 甕形 내지 鉢形土器로 嶺南內陸地方 出土 櫛文土器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전술한 바와 같이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系統은 南海岸地方에서 찾아 볼 수 밖에 없다. 南海岸地方 諸 貝塚 遺蹟 중 金海水佳里 貝塚에서는 新石器時代 後期에 해당하는 水佳里 II 式土器에서 부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口緣部끝이 살짝 외반된 기미를 보인다는지, 약간씩 文樣 空白部가 生成되기 시작 하는 등 다소 이질적인 요소가 보인다²⁷⁾. 그밖에 欲知島²⁸⁾, 山登²⁹⁾, 金谷洞栗里³⁰⁾, 突山 松島貝塚³¹⁾ 등에서도 아주 극소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南海岸地方에서 江을 따라 內陸 깊숙히 문화가 전파되면서 變化·發展하여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の 生成” 등과 같은 새로운 요소가 발생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點烈文系統 文樣은 嶺南內陸地方의 경우 斜格子文과 아울러 비교적 높은 出土量을 보여주고 있다. 文樣의 특징도 嶺南內陸地方의 특징적인 요소인 口緣部에 文樣 空白部가 生成되어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를 띄우고 文樣이 시문된 특징을 보여 주거나 點烈을 연속적으로

24)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 105 參照.

25) 沈奉謹, 註 2) - ③ 前掲書, pp. 60~62 參照.

26) 任孝宰 外, 『鰲山里遺蹟』I~III, 서울大學校博物館, 1984~1988.

27)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28) 國立晉州博物館, 註 10)의 前掲書, 그림 8~10 參照.

29) 金東鎬·朴九秉, 『山登貝塚』, 水產大學校博物館, 1989, 圖面17~20 參照.

30) 金廷鶴·鄭澄元, 『金谷洞栗里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1980, 插圖18~19 參照.

31) ① 國立光州博物館, 『突山 松島』I, 1989, 그림 24~28 參照.

② _____, 註 23)의 前掲書, 그림 26~33 參照.

찍어 마치 線의 효과를 낸 點烈線文이 새로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點烈文系統의 文樣은 欲知島³¹⁾, 朝島貝塚³²⁾ 등 南海岸地方의 諸 貝塚 遺蹟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황해도 지담리유적³³⁾, 강원도 오산리유적³⁴⁾ 등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지담리와 오산리 유적에서 검출된 點烈文系統의 文樣은 그 형태 및 구성면에 있어서 영남내륙지방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반면에 南海岸地方에서 검출된 것에는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도 있어 이들 문양의 계통은 南海岸地方에서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砂質性 胎土는 西海岸地方의 櫛文土器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胎土인데, 南海岸地方에서는 新石器時代 晩期의 특징적인 요소로 등장³⁵⁾하는 반면에 嶺南內陸地方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이른시기³⁶⁾부터 등장하고 있음이 크게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가 대체적으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른시기부터 부분적으로 西海岸地方 등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土器의 型式分類

型式分類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屬性은 口緣部의 형태, 文樣의 施文部位 및 施文手法, 文樣의 構成形態 등이 되겠다. 먼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口緣部의 形態와 文樣의 施文部位에 따라 모두 4類型으로 分類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類型: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 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시문된 것.
- II 類型: 口緣部가 外反하고 口緣部 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것.
- III 類型: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 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것.
- IV 類型: 二重口緣土器類.

이상으로 전술한 4類型은 다시 文樣의 施文手法에 따라 세분되는데, 文樣의 施文手法이 押引文系는 a類, 刺突文系는 b類, 沈線文系는 c類, 退化沈線文系는 d類로 세분한 결과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Ia~Ic, Ib~Id, IIb~IIId, IVb, IVc類型 등 모두 11개의 小 類型으로 세분되었다. 그럼 아래에서는 이상의 각 類型을 중심으로 型式分類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31) 國立晉州博物館, 註 10)의 前掲書, 그림 8~10 參照.

32) 鄭澄元, 註 11)의 前掲文, pp. 14~15 參照.

33) 도유호·황기덕, 「지담리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8, 1961.

34) 任孝宰 外, 註 26)의 前掲書.

35) 鄭澄元, 「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研究(1) - 釜山 慶南地方 晩期櫛文土器의 檢討 -」 『釜大史學』, 6, 1982, pp. 18~21 參照.

36) 嶺南內陸地方의 경우는 晉陽 上村里 中村洞 遺蹟에서 砂質性 胎土를 가진 押引系 短斜線文이 施文된 櫛文土器가 檢出되고 있다.

가. I 類型

口緣部가 직립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문양이 시문된 특징을 가진 土器類로서 文樣의 施文手法에 따라 모두 3類型으로 세분된다.

1) Ia 類型(圖面 2)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押引系의 文樣이 施文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세부적인 器形을 살펴보면, 口緣部는 거의 직선적으로 직립하거나 밖으로 약간 벌어지면서 직립하고 口脣은 둥근 것과 편평한 것 등 두 종류가 있는데, 口脣이 편평하고 양끝 부분이 뚜렷하게 각이 진 것이 주류를 이룬다.

文樣은 구연부끝에서 곧바로 押引系短斜線文, 押引系短斜線文과 沈線文系의 橫走魚骨文이 결합한 것, 押引系의 橫走魚骨文, 押引系爪文 등 4종류가 있는데, 押引系短斜線文과 橫走魚骨文이 결합된 경우는 底部까지 문양이 시문된 器全面施文土器일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口緣部나 胴部까지만 文樣이 시문된 部分施文土器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2) Ib 類型(圖面 3-①, ②)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곧바로 刺突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의 특징은 전술한 Ia類型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口脣은 모두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文樣은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2렬의 點烈을 橫으로 찍어 돌리고 그 아래에 다시 '~'모양의 점열을 서로 교차되게 연속적으로 찍어 시문한 波狀點烈文, 끝이 三角形의 施文具를 사용하여 찍어 당기는 형식으로 평행되게 點을 연속으로 찍어 시문한 平行點烈文 등 2종류가 있다.

3) Ic 類型(圖面 3-③~⑦)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곧바로 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의 특징은 전술한 Ia, Ib類型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口脣은 모두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文樣은 菱形集線文, 斜格子文, 鳥羽形文 그리고 二重으로 된 마름모형을 연속으로 잇대어 그은 二重菱形文 등 4종류가 있는데, 문양 시문시 單齒具를 사용하여 비교적 깊게 그어 凹面의 깊이가 깊고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나. II 類型

口緣部가 외반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된 土器類로서 文樣의 施文手法에 따라 모두 3類型으로 세분된다.

1) II b 類型(圖面 4)

口緣部가 외반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刺突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의 형태는 끝만 살짝 외반한 것, 끝이 뾰족하면서 살짝 외반한 것,

서서히 외반한 것, ‘<’ 형으로 급격히 외반한 것 등이 있는데, 서서히 외반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口脣은 끝이 둥근 것, 뾰족하면서 둥근 것, 편평한 것 등 모두 3종류가 있다.

文樣은 平行點烈文, 平行點烈線文, 지그재그문, 縱走點烈線文 등 4종류가 있는데, 지그재그문과 縱走點烈線文은 모두 壺形土器의 口頸部에만 시문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平行點烈文에는 끝이 三角狀의 뾰족한 施文具로 찍어 시문한 것, 끝이 둥근 시문구로 찍은 것, 半圓狀의 弧形 施文具로 찍어 시문한 것, 竹管形의 施文具로 찍어 시문한 것 등이 있다. 그리고 平行點烈線文은 點烈을 연속으로 찍어 마치 線의 효과를 낸 것인데,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施文具로 연속적으로 찍어 線의 효과를 낸 것, 半圓狀의 弧形 施文具로 연속으로 찍어 線의 효과를 낸 것, 끝이 뾰족하거나 양끝이 돌출한 施文具로 연속으로 찍어 밀면서 線의 효과를 낸 것 등 문양의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2) II c 類型(圖面 6, 7)

口緣部가 외반하고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의 형태는 거의 직선적으로 직립하다가 끝만 살짝 외반된 것, 서서히 외반된 것, “<” 형으로 급격히 외반된 것 등 3종류가 있으며, 口脣은 편평한 것과 둥근 것 등 2종류가 있는데, 편평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文樣은 菱形集線文, 三角集線文, 橫走魚骨文, 斜格子文, 縱走集線文 등 5종류가 있는데, 이 중 斜格子文이 가장 많은 量을 차지한다. 특히 菱形集線文에는 7~8렬의 斜線을 서로 직교되게 연속적으로 그은 전형적인 능형집선문이 있는 반면에 먼저 마름모꼴의 線을 구획한 뒤 그 안에 다시 斜線을 그은 다소 변형된 것도 있다. 그리고 斜格子文에는 格子의 幅이 넓은 것과 조밀한 것 등 다양한 편인데, 모두 시문된 凹面의 깊이가 비교적 깊고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3) II d 類型(圖面 9)

口緣部가 외반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退化沈線文系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의 형태는 끝만 살짝 외반한 것, 서서히 외반한 것 등 2종류가 있다. 口脣은 끝이 둥근 것과 편평한 것이 있는데, 편평한 것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文樣은 長斜線文, 短斜線文, 退化短斜線文, 退化斜格子文 등이 있는데, II c 類型에 비해 비교적 凹面이 얇고 施文狀態가 조잡하며 文樣施文幅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다. III 類型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土器類로서 文樣的 施文手法에 따라 모두 3類型으로 세분된다.

1) III b 類型(圖面 5)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刺突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는 앞서 본 I 類型과같이 직립하고 있으며 口脣은 끝이 편평하거나

약간 등근 것이 있다. 文樣은 Ⅱb類型과는 달리 平行點烈文과 平行點烈線文만 검출되는데, 주로 끝이 등근 施文具로 찍어 시문하거나 연속으로 찍어 線의 효과를 낸 것이 대부분이다.

2) Ⅲc 類型(圖面 8)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는 Ⅰc類型과같이 대체적으로 직립하고 있으나 角이 지지 않고 끝이 胴部の 두께에 비해 다소 얇거나 口緣 內側만 살짝 외반된 형태를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口脣은 편평한 것과 등근 것이 있는데, Ⅰc類型에 비해 口脣의 끝이 등근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文樣은 菱形集線文, 斜格子文, 鳥羽形文, 縱走集線文, 縱走魚骨文 등이 검출되는데, Ⅱc類型과 마찬가지로 斜格子文이 압도적으로 많고 시문된 凹面의 깊이가 비교적 깊고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3) Ⅲd 類型(圖面 10)

口緣部가 직립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退化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口緣部는 Ⅲc類型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口脣은 Ⅲc類型에 비해 끝이 등근 것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文樣은 長斜線文, 鋸齒文, 退化斜格子文, 短斜線文, 退化短斜線文 등이 있으며 시문된 凹面은 Ⅱd類型과같이 깊이가 얇고 조잡한 것이 특징이다.

라. Ⅳ類型

二重口緣土器類로서 文樣의 施文手法에 따라 2종류로 세분된다.

1) Ⅳb 類型(圖面 11-①)

二重口緣土器類로서 刺突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덧붙인 粘土의 斷面은 逆三角形이며 文樣은 縱走點烈線文이 施文되어 있다.

2) Ⅳc 類型(圖面 11-②~⑩, ⑫, ⑬)

二重口緣土器類로서 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櫛文土器를 지표로 한다. 二重口緣의 형태는 단면이 타원형인 것, 역삼각형인 것, 납작한 것 등이 있으며 文樣은 斜格子文과 長斜線文이 시문되어 있는데, 斜格子文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斜格子文은 格子된 幅이 넓은 것과 조밀한 것, 시문된 凹面이 깊고 뚜렷한 것과 얇은 것 등 다양한 편이다.

Ⅲ. 段階 設定과 編年

1. 段階 設定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각 類型에 따른 型式分類의 결과에 따라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Ⅰ類型), 口緣部가 直立하거나 外反하면서 口緣部끝

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Ⅱ類型 및 Ⅲ類型), 二重口緣土器가 주류를 이루는 時期(Ⅳ類型) 등 크게 3段階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各段階는 다시 文樣의 施文手法, 文樣의 施文幅, 文樣의 退化 정도에 따라 新·古의 두단계로 세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 각 단계별 出土遺物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 段階

이 段階는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 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特徵을 가진 櫛文土器가 檢出되는 時期이다. 따라서 Ia, Ib, Ic類型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다시 文樣施文手法 및 文樣形態別 特徵에 따라 A·B 2개의 小 段階로 세분이 가능하다.

I A 段階

이 段階는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 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I類型 櫛文土器 가운데 押引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Ia類型 櫛文土器가 檢출되는 시기이다. 이 段階 櫛文土器의 특징을 살펴보면, 口緣部는 거의 직선적으로 直立하고 있으며, 口脣은 편평하고 양끝 부분이 뚜렷하게 각이 진 것이 특징이다. 文樣은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시문되고 있으며 文樣의 종류로는 押引系短斜線文, 押引系短斜線文+橫走魚骨文, 押引系爪文, 押引系橫走魚骨文 등이 있다. 특히 이 단계 櫛文土器의 文樣은 그 施文幅이 비교적 넓은 것이 특징인데, 押引系短斜線文과 橫走魚骨文이 결합된 複合施文土器는 구연부끝에서 부터 底部까지 전체적으로 文樣이 시문된 器全面施文土器일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胴部의 1/2이나 2/3까지 文樣이 施文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 B 段階

전술한 I A段階에서 유행하던 押引系의 文樣이 시문된 Ia類型 櫛文土器가 사라지는 대신에 口緣部의 형태 및 文樣의 施文部位 등 前 段階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南部地方 전형적인 太線文 系統인 沈線文系와 다소 이질적인 文樣 전통을 가진 刺突文系의 문양이 시문된 櫛文土器가 檢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嶺南內陸地方에서 檢출된 櫛文土器 중에는 刺突文系의 문양이 시문된 Ib類型과 沈線文系의 文樣이 시문된 Ic類型이 여기에 속한다. 이 段階 櫛文土器의 特徵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口緣部 形態 및 文樣 施文部位에 있어서는 前 段階인 I A段階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文樣에 있어서는 I A段階와 달리 刺突文系인 ‘~’ 形의 波狀點烈文, 平行點烈文, 沈線文系인 菱形集線文, 二重菱形文, 鳥羽形文, 斜格子文 등이 채용되고 있다. 특히 刺突文系인 ‘~’ 形의 波狀點烈文, 平行點烈文 등이 施文된 Ib類型을 이 段階로 分類한 것은 口緣部의 형태나 文樣施文部位가 I A段階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欲知島³⁸⁾, 鰲山里³⁹⁾, 瀛仙洞⁴⁰⁾, 朝島⁴¹⁾

38) 國立晉州博物館, 註 10)의 前掲書, 그림 8~10 參照.

39) 任孝宰 外, 註 26)의 前掲書.

40) ① 有光教一, 「朝鮮瀛仙町の一貝塚に就いて」 『人類學雜誌』 51-2, 1936.

② _____, 註 15)의 前掲書, 圖面 XLIII-15, 18 參照.

등 비교적 이른시기 유적에서 先行 型式 내지 類似 型式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嶺南內陸地方 I 段階 櫛文土器는 口緣部의 형태, 文樣施文手法, 文樣構成形態 등에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거의 동일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海岸에서 內陸으로 문화가 전파되는 시기인 본 단계에 있어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I 段階

이 段階는 口緣部가 외반하거나 직립되면서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된 특징을 가진 櫛文土器가 검출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II b, III b, I c, III c, I d, III d 類型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嶺南內陸地方 諸 遺蹟에서는 본 段階에 속하는 類型의 櫛文土器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文樣面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띠는 한편 文樣施文部位등이 앞 단계와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 口緣部가 외반하고 구연부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된 II 類型 櫛文土器는 海岸地方의 諸 貝塚 遺蹟에 비해 嶺南內陸地方에서 주로 급증하고 있어 하나의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다시 문양의 시문폭과 퇴화 정도에 따라 A·B 2개의 小 段階로 細分이 가능하다.

II A 段階

이 段階는 II 類型과 III 類型 櫛文土器 가운데 刺突文系의 II b 類型과 III b 類型, 文樣的 施文面積이 비교적 넓거나 凹面의 깊이가 비교적 깊고 뚜렷하게 시문된 沈線文系의 II c 類型과 III c 類型 등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이다. 이 段階 櫛文土器의 특징을 살펴보면, 口緣部는 외반된 것과 직립된 것 등 두종류가 있는데, 外反口緣을 가진 II b, II c 類型 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文樣은 菱形集線文, 鳥羽形文, 斜格子文, 三角集線文, 縱走集線文, 橫走魚骨文, 縱走魚骨文, 지그재그문, 平行點烈文, 平行點烈線文, 縱走點烈線文 등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이 段階에서는 I B 段階에 이어 菱形의 線을 먼저 구획한 후 그 안에 다시 斜線을 그어 菱形集線文이 시문된 變形菱形集線文이 나타나고 있으며, 斜格子文의 경우도 시문된 格子의 간격이 넓은 것과 좁고 조밀한 것 등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다. 橫走魚骨文은 南海岸地方의 諸 貝塚 遺蹟에서 검출되는 것과는 달리 口緣部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되면서 문양 자체가 口緣部에만 한정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刺突文系의 點烈文 내지 點烈線文이 이 段階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嶺南內陸地方의 諸 遺蹟에서 거의 공통된 현상으로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段階에서는 壺形土器(圖面 12)도 상당히 많이 검출되는데, 지그재그문, 縱走點烈線文, 縱走集線文, 縱走魚骨文 등이 주로 壺形土器의 口頸部 文樣으로 채용되고 있다.

41) 鄭澄元, 註 11)의 前掲文, pp.14~22 參照.

Ⅱ B 段階

이 段階는 文樣의 施文幅이 극히 줄어들고 문양 자체가 퇴화되는 시기로서 退化沈線文系인 Ⅱd, Ⅲd類型 가운데 擦過狀 내지는 退化斜格子文, 短斜線文, 鋸齒文이 시문된 櫛文土器類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平行點烈文 系統인 竹管文(圖面4-⑥)이 施文된 것과 平行點烈線文 系統인 半管形點烈線文(圖面4-⑧)도 文樣의 施文幅이 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포함된다. 이 段階 櫛文土器의 特徵을 살펴보면, 口緣部는 외반된 것과 직립된 등 두종류가 있는데 長斜線文, 短斜線文, 退化斜格子文 등은 外反口緣을 가진 土器類와 결합되는 경우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文樣은 前 段階의 文樣 일부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거나 시문폭이 축소 내지는 퇴화되면서 새로이 長斜線文, 短斜線文, 退化斜格子文, 鋸齒文 등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斜格子文은 Ⅱ A 段階에서 크게 유행하던 문양인데, 이 段階까지도 계속 이어져 검출되다가 二重口緣土器의 口緣部 文樣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그 일부가 전형적인 斜格子文의 영향을 받아 凹面이 얇고 찰과상으로 스쳐 그은 擦過狀 斜格子文이나 施文幅이 극히 축약되고 퇴화된 退化斜格子文으로 계승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Ⅱ 段階 櫛文土器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앞 단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 生成” 등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刺突文系의 點烈文系統의 문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가 本 段階에서 부터 본격적으로 자체적인 변화를 거쳐 發展하면서 독자적인 文化圈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Ⅲ 段階

이 段階는 口緣部 끝에 점토대를 부착한 二重口緣土器가 처음 등장하여 크게 유행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홀구연의 경우는 Ⅱ 段階에서 주로 검출되던 短斜線文이 더욱 퇴화된 退化短斜線文이 施文된 土器類가 검출된다. 특히 二重口緣土器의 경우 初期에는 前 段階인 Ⅱ 段階에서 유행하던 斜格子文, 縱走點烈線文, 長斜線文이 口緣部 文樣으로 채용되다가 時期가 내려오면서 文樣이 극히 생략되거나 퇴화되어 한 두줄의 短斜線을 조잡하게 施文한 退化短斜線文이 施文되기도 하고 아예 文樣이 생략되기도 한다.

이 段階에서도 전술한 Ⅱ 段階와 같이 文樣의 施文幅, 退化정도, 文樣의 有·無에 따라 A·B 2개의 小 段階로 세분이 가능하다.

Ⅲ A 段階

이 段階는 斜格子文, 長斜線文, 縱走點烈線文 등 前 段階에서 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던 문양 일부가 겹(이중)구연토기의 口緣部 文樣으로 채용되기도 하고 홀구연에서는 平行點烈線文, 長斜線文, 退化短斜線文, 擦過狀의 斜格子文등이 口緣部 文樣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 段階 櫛文土器의 特徵을 살펴보면, 口緣部는 홀구연과 겹(이중)구연 등 두종류가 있는데, 홀구연토기는 세부적으로 口緣이 直立한 것, 外反된 것 등 前 段階의 전통을 그대로 계

승하고 있다. 그러나 겹(이중)구연토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 段階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型式인데, 별도로 부착된 점토대의 단면은 逆三角形, 橢圓形, 長方形, 細長方形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文樣은 刺突文系의 縱走點烈線文, 平行點烈線文, 沈線文系의 斜格子文, 長斜線文, 擦過狀의 斜格子文, 退化沈線文系의 退化短斜線文 등이 주로 검출된다.

Ⅲ B 段階

이 段階는 전술한 Ⅲ A 段階의 토기 특징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斜格子文, 長斜線文 등 비교적 施文幅이 넓은 文樣은 사라지고 문양 자체가 더욱 퇴화되어 극히 조잡하게 한 두줄의 短斜線이 시문되거나 아예 문양이 없는 無文樣 土器類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文樣의 종류도 극히 한정되어 Ⅲ d 類型 중 1烈的 短斜線이 조잡하게 시문된 退化短斜線文만 주로 검출된다.

이상에서 전술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型式分類를 토대로 段階를 設定해 본 결과 口緣部의 形態와 文樣施文部位에 따라 크게 3段階로 나누어졌고 이들은 다시 文樣施文手法이나 文樣의 施文幅 및 退化정도에 따라 2개의 小段階로 細分되는 등 모두 6段階로 나눌 수 있었다.

2. 編 年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기본적으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的 位置에 대해 論하기 앞서 먼저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가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變化 發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研究者들에 의해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대한 구체적인 編年案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 중 대표적인 編年案을 살펴보면, 東三洞 層位를 기준으로한 編年案과 水佳里 層位를 기준으로한 編年案 등 크게 두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에는 隆起文土器와 押捺文土器·原始無文土器가 出土되는 先櫛文期(前期), 太線의 전형적인 櫛文土器가 나타나는 櫛文I期(中期), 二重口緣土器와 變形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는 櫛文II期(後期) 등 3段階의 編年案⁴²⁾과 東三洞 貝塚을 朝島期, 牧島期, 釜山期, 頭島期, 影島期로 구분한 5段階 編年案⁴³⁾이 있다. 그리고 後者에는 崔鍾圭의 編年案⁴⁴⁾을 인용하여 隆起文을 早期, 押引文을 前期에 대입시키고 太線沈線文이 주류를 이루는 水佳里I期를 中期, 沈線文이 退化되는 水佳里II期

42) ① 金元龍, 「新石器文化」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73, pp. 61~82參照.

② _____, 「新石器文化-編年-」 『韓國史』1, 國史編纂委員會, 1973, pp. 161~168 參照.

43) C. S. Chard, Albert More, L. L. Sample, 「朝鮮新石器初期の土器編年に關する新資料」 『朝鮮學報』 41, 1966.

44) 崔鍾圭, 「機何文土器의 編年表作成을 위한 一小考」, 釜山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77, pp. 18~20 參照.

를 後期, 二重口緣과 砂質性胎土가 등장하는 水佳里Ⅲ期를 晩期로 분류한 編年案⁴⁵⁾과 隆起文을 早期, 刺突文을 前期前半, 押引文을 前期後半으로 中期 이후는 水佳里編年을 대입한 編年案⁴⁶⁾ 등이 있다.

이상의 여러 編年案을 종합해 보면, 南海岸地方 櫛文土器는 대체적으로 隆起文(早期), 刺突文·押引文(前期~中期前葉), 沈線文(中期), 退化沈線文(後期), 二重口緣土器(晩期)로 변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전술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을 토대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各 段階別 編年的 位置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 段階는 口緣部가 직립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시문되는 시기로서 I A 段階와 I B 段階로 세분된다.

IA 段階는 押引文系(I a 類型) 櫛文土器가 검출되는 시기이다. 전술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新石器時代 前期~中期前葉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바탕을 두고 있고 海岸에서 內陸으로 文化가 전파되는 時期를 감안 할 때 적어도 南海岸地方 櫛文土器(押引文系土器)의 年代와 동일한 時期가 되거나 이 보다 다소 늦은 時期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I A 段階의 時期는 新石器時代 中期前半이 妥當할 것으로 보인다.

I B 段階는 刺突文系(I b 類型)와 沈線文系(I c 類型) 櫛文土器가 검출되는 시기이다. 이들 가운데 時期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菱形集線文, 斜格子文이 施文된 土器類가 있다. 이들 문양이 시문된 土器類는 嶺南內陸地方에서 뿐만 아니라 南海岸地方의 櫛文土器에서도 널리 검출되고 있어 本 段階의 編年 基準을 잡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東三洞 貝塚의 編年을 체계적으로 分析한 L. Sample⁴⁷⁾에 의하면 이들 文樣은 釜山期에서 주로 검출되며, 金海 水佳里 貝塚의 경우는 菱形集線文이 시문된 IC₂式과 斜格子文이 시문된 ID₂式이 이들 文樣과 같은 종류인데, IC₂式은 V - VI ~ IV - V 層, ID₂式은 V ~ IV - V 層에서 각각 검출되고 있다⁴⁸⁾. 따라서 이들 層位의 年代를 참고로 하면 本 I B 段階는 新石器時代 中期 後半에 해당되는 時期로 판단된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I 段階는 口緣部가 직립하거나 외반하면서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되는 시기로서 II A 段階와 II B 段階로 세분된다.

II A 段階는 刺突文系(II b·III b 類型)와 沈線文系(II c·III c 類型) 櫛文土器가 검출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 段階의 編年的 位置를 직접적으로 대비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그것은 이 段階의 특징적인 요소인 口緣部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시문된 것이나

45)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112~171 參照.

46) 小原哲, 「朝鮮櫛目土器의 變遷」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上, 1987. pp.329~334 參照.

47) C. S. Chard, Albert More, L. L. Sample, 註 43)의 前掲文.

48)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112~120 參照.

口緣部の 형태가 외반된 특징을 가진 것 등이 南海岸地方의 諸 貝塚 遺蹟 가운데 대표적인 金海 水佳里 貝塚⁴⁹⁾, 釜山 東三洞 貝塚⁵⁰⁾ 등의 遺蹟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海 水佳里 貝塚 出土 櫛文土器를 자세히 살펴보면, 水佳里 2式 土器 즉 第Ⅳ層 부터 第Ⅲ層에서 檢出된 櫛文土器⁵¹⁾의 경우 부분적으로 口緣部끝과 施文된 文樣 사이에 약간의 空白이 생긴다든지 또는 口緣部の 끝이 살짝 外反된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등 ⅡA段階의 櫛文土器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特徵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山登貝塚⁵²⁾과 突山 松島貝塚⁵³⁾의 경우 가장 늦은 層位인 第Ⅰ, Ⅱ層에서 주로 外反口緣土器나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特徵을 가진 土器類가 검출하는 점으로 보아 ⅡA段階에 속하는 櫛文土器類는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特徵을 가진 Ⅰ段階 土器類보다 후행하는 時期의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ⅡA段階는 金海 水佳里 貝塚 第Ⅳ層⁵⁴⁾에서 처음으로 口緣部끝과 施文된 文樣 사이에 空白이 생기기 시작하는 점과 ⅠB段階의 編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新石器時代 後期 前半에 해당하는 시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ⅡB段階는 文樣의 施文幅이 극히 좁아지고 조잡하게 施文되는 退化沈線文系(Ⅱd·Ⅲd類型) 櫛文土器가 검출되는 시기이다. 이 段階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이 段階에서 새로이 登場하는 長斜線文, 短斜線文, 退化斜格子文, 鋸齒文 등이 있다. 長斜線文은 南海岸 地方의 金海 水佳里 貝塚의 경우 第Ⅲ Ⅲ-Ⅳ層⁵⁵⁾, 山登貝塚의 경우 第Ⅱ層⁵⁶⁾에서 각각 검출되고 있고, 短斜線文은 突山里 松島 貝塚의 第Ⅰ~Ⅱ層⁵⁷⁾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리고 鋸齒文은 金海 水佳里의 경우 第Ⅲ層⁵⁸⁾에서 검출되는 등 대체적으로 이들 退化沈線文系가 施文된 Ⅱd, Ⅲd類型은 南海岸地方의 경우 비교적 늦은 層位에서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ⅡB段階는 金海 水佳里 貝塚의 경우 第Ⅱ期層인 Ⅲ層에서 부터 文樣의 施文幅이 극도로 축약 혹은 퇴화되고 있는 점⁵⁹⁾등으로 볼 때 新石器時代 後期 後半에 해당되는 시기로 판단된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Ⅲ段階는 二重口緣土器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서 ⅢA段階와 ⅢB段階로 세분된다.

49)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 52~76 參照.

50) 有光教一, 註 15) - ② 前掲書.

51)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 52~76 參照.

52) 金東鎬·朴九秉, 註 29)의 前掲書, 圖面 17~20 參照.

53) 國立光州博物館, 註 31) - ①·② 前掲書, 그림 24~28 및 註 23)의 前掲書, 그림 26~33 參照.

54)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 52~75 參照.

55)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pp. 52~75 參照.

56) 金東鎬·朴九秉, 註 29)의 前掲書, p. 32, 圖面 18-② 參照.

57) 國立光州博物館, 註 31)의 前掲書, 그림 24~28 및 註 23)의 前掲書, 그림 26~33 參照.

58)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圖面 12-② 參照.

59)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圖面 1~18 參照.

ⅢA段階는 前 段階의 文樣이 더욱 退化되면서 새로이 二重口緣土器가 등장하여 유행하는 시기이다. 이 段階의 時期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口緣部 文樣으로 斜格子文, 長斜線文, 縱走點烈線文 등이 시문된 二重口緣土器類와 홀구연의 경우에는 退化短斜線文, 長斜線文, 찰과상의 斜格子文이 시문된 櫛文土器類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二重口緣土器는 南海岸地方의 경우 釜山 金谷洞 栗里 貝塚⁶⁰, 金海 水佳里 貝塚 第Ⅲ期層인 I·II層⁶¹, 釜山 東三洞 貝塚의 最末期인 影島期⁶²에서 주로 검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段階는 이들 南海岸 地方의 諸 貝塚 遺蹟의 層位를 참고로 할 때 新石器時代 晚期 前半에 해당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ⅢB段階는 ⅢA段階의 土器特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文樣이 더욱 退化되어 한 두줄의 退化短斜線文이 시문되거나 아예 文樣이 생략된 無文樣土器類가 增加하는 時期이다. 이 段階의 時期는 전술한 ⅢA段階의 年代를 감안해 볼 때 新石器時代 晚期 後半으로 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을 참고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各 段階別 編年의 位置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대체적으로 新石器時代 中期 부터 晚期의 時期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編年은 어디까지나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이 그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嶺南內陸地方의 發掘成果에 따라 명확한 年代基準이 마련된다면 다소 변화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차후 다시 검토할 생각이다.

IV. 結 言

이상의 內容을 간단히 整理함으로서 結言에 대신코자 한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器形面에서 밑이 뾰족하거나 둥근 尖底 혹은 丸底形의 底部를 가진 深鉢形, 鉢形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文樣은 施文部位에 따라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된 것과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된 것으로 크게 두종류로 兩分된다. 그러나 施文手法에 따라서는 押引文系, 刺突文系, 沈線文系, 退化沈線文系 등 모두 4종류로 세분된다. 그리고 이들 土器는 기본적으로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外反口緣” “文樣 空白部 生成” “點烈文系統 文樣의 急增” “砂質性胎土” 등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와는 다른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口緣部끝이 살짝 외반된 기미를 보인다든지 부분적인 文樣 空白部가 生成되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이 變化 發展되면서 “砂質性胎土”와 같은 西海岸地方 櫛文土器의 특징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60) 金廷鶴 外, 註 36)의 前掲書, 挿圖 21~23 參照.

61) 鄭澄元 外, 註 13)의 前掲書, 圖面 6~10 參照.

62) C. S. Chard, Albert More, L. L. Sample, 註 43)의 前掲書.

다음은 이들 토기에 대한 型式分類 결과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口緣部の 形態와 文樣 施文部位에 따라 모두 11개의 類型으로 세분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의 段階를 設定해 본 결과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는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I 段階), 口緣部가 直立하거나 外反하면서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II 段階), 二重口緣土器類가 주류를 이루는 時期(III 段階) 등 크게 3段階의 時期로 區分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文樣의 施文手法 및 形態, 文樣施文幅에 의해서 新·古 두개의 小段階로 나누어지는 등 모두 6段階로 세분할 수 있었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段階는 口緣部가 直立하고 口緣部끝에서 곧바로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로서 文樣 施文手法에 따라 A·B 두단계로 세분되었다.

I A段階는 押引文系(I a類型) 櫛文土器가 檢出되는 時期이다.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의 編年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新石器時代 前期에서 中期前葉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토기는 南海岸地方 櫛文土器에 바탕을 두고 있고 海岸에서 內陸으로 전파되는 時期를 감안할 때 南海岸의 押引文系土器의 年代와 동일한 時期가 되거나 이 보다 다소 늦은 時期인 新石器時代 中期前半이 妥當할 것으로 보았다.

I B段階는 刺突文系(I b類型)와 沈線文系(I c類型) 櫛文土器가 檢출되는 시기이다. 이들 가운데 菱形集線文과 斜格子文이 施文된 토기는 東三洞貝塚의 釜山期, 水佳里貝塚의 V層에서 주로 檢출되는 것으로 보아 I B段階의 時期는 新石器時代 中期後半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I段階는 口緣部가 직립하거나 외반하면서 口緣部끝에서 일정한 空白을 띄우고 文樣이 施文되는 時期로서 文樣施文幅 및 退化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A·B 두단계로의 세분이 가능하다.

II A段階는 刺突文系(II b·III b類型)와 沈線文系(II c·III c類型) 櫛文土器가 檢출되는 時期이다. 이들 토기와 유사한 특징으로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水佳里貝塚 IV~III層, 山登貝塚과 突山松島貝塚의 가장 늦은 층위인 I, II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II段階의 時期는 水佳里貝塚 IV~III層의 年代와 후술할 II B段階의 時期를 고려하여 新石器時代 後期前半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B段階는 退化沈線文系(II d·III d類型) 櫛文土器가 檢출되는 시기이다. 이들 토기의 文樣은 水佳里의 경우 III層, 山登貝塚의 경우 II層, 突山松島貝塚의 경우 I, II層에서 檢출되고 있다. 따라서 II B段階의 時期는 進술한 遺蹟 層位의 年代로 보아 新石器時代 後期後半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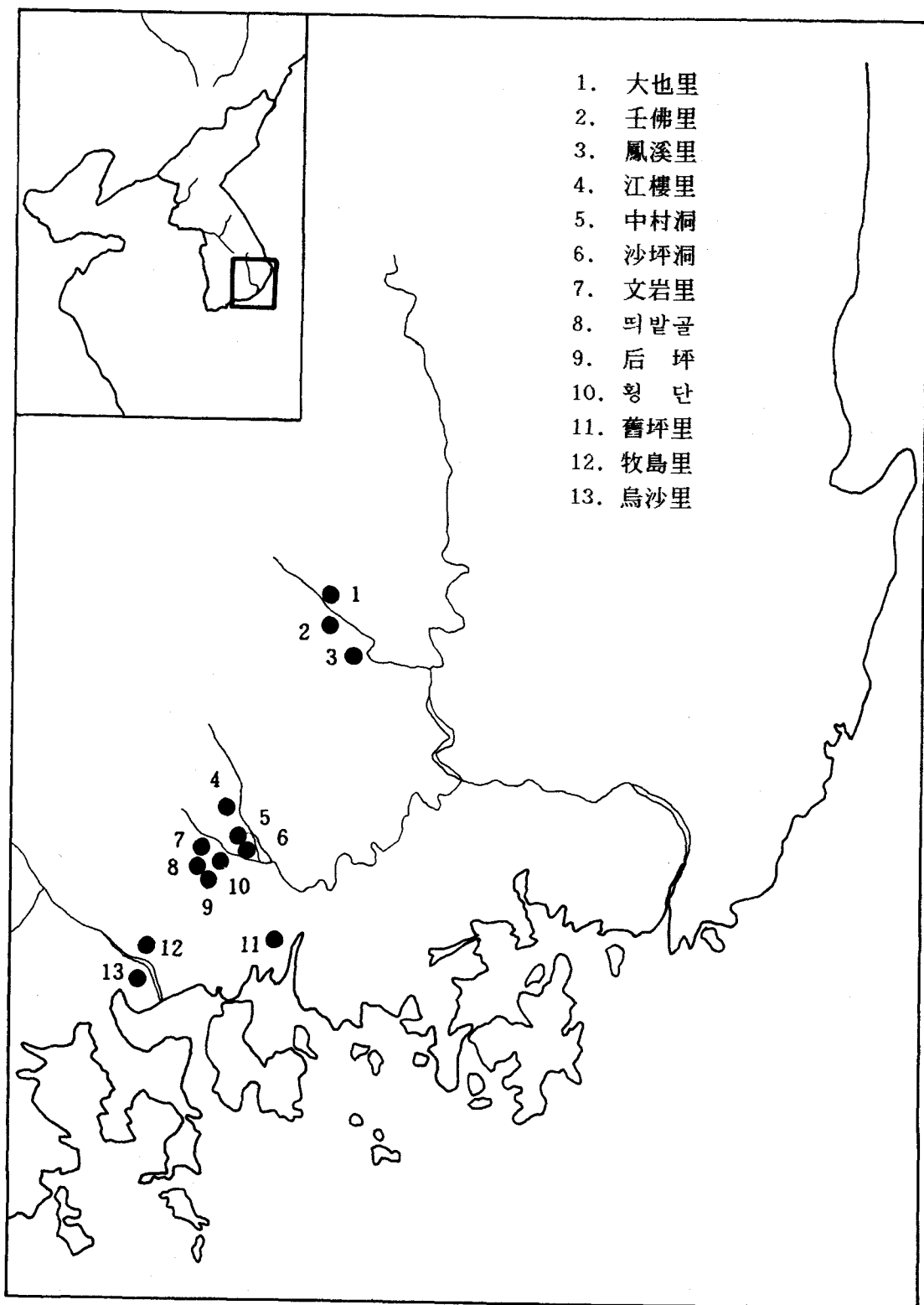
嶺南內陸地方 櫛文土器 III段階는 二重口緣土器類가 주류를 이루는 時期로서 文樣의 形態 및 退化정도에 따라 A·B 두단계로 세분이 가능하다.

III A段階는 二重口緣土器에 縱走點烈線文과 斜格子文이 시문된 IV b類型과 IV c類型이 檢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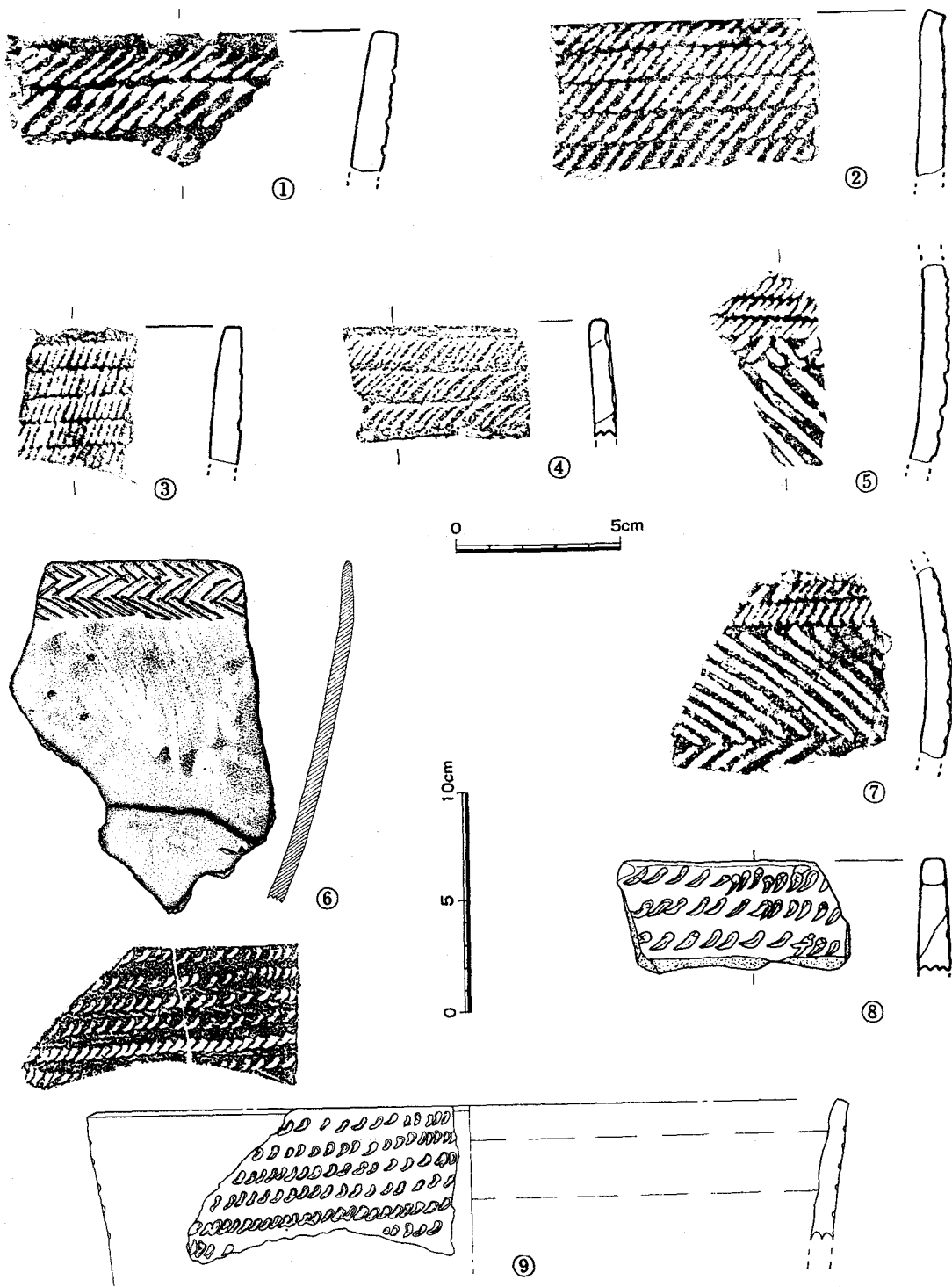
되며 II d類型 가운데 退化短斜線文이 施文된 土器類가 檢출되는 시기이다. 이들 土器의 文樣은 水佳里 I·II層, 東三洞貝塚의 最末期인 影島期에서도 檢출되고 있다. 따라서 그 時期는 新石器時代 晚期前半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B段階는 進술한 III A段階의 土器 特徵이 그대로 계승되면서 斜格子文, 長斜線文 등 비교적 施文幅이 넓은 文樣은 사라지고 문양 자체가 더욱 退化되어 극히 조잡하게 한 두줄의 短斜線이 시문되거나 아예 文樣이 없는 無文樣 土器類가 압도적으로 增加하는 時期이다. 그 時期는 新石器時代 晚期後半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최근에 조사된 자료와 기존 자료를 종합하여 이곳 櫛文土器의 編年的 位置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은 정식 發掘調査를 통한 資料가 불과 몇 군데 뿐으로 대부분이 地表調査를 통해 얻은 단편적인 자료이며, 더욱이 이들 마저도 遺構의 重複關係나 層序的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型式分類나 編年作業에 따른 論理의 비약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은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계속 수정 보완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는 궁극적으로 이 시기 즉, 新石器時代에 대한 사회 복원 내지는 그 생활상을 밝히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부족한 所致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다. 後日을 기약코자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學術調査를 통하여 住居址 등의 生活遺蹟에 대한 全般的인 研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圖面 1. 嶺南內陸地方 新石器時代 櫛文土器 遺蹟 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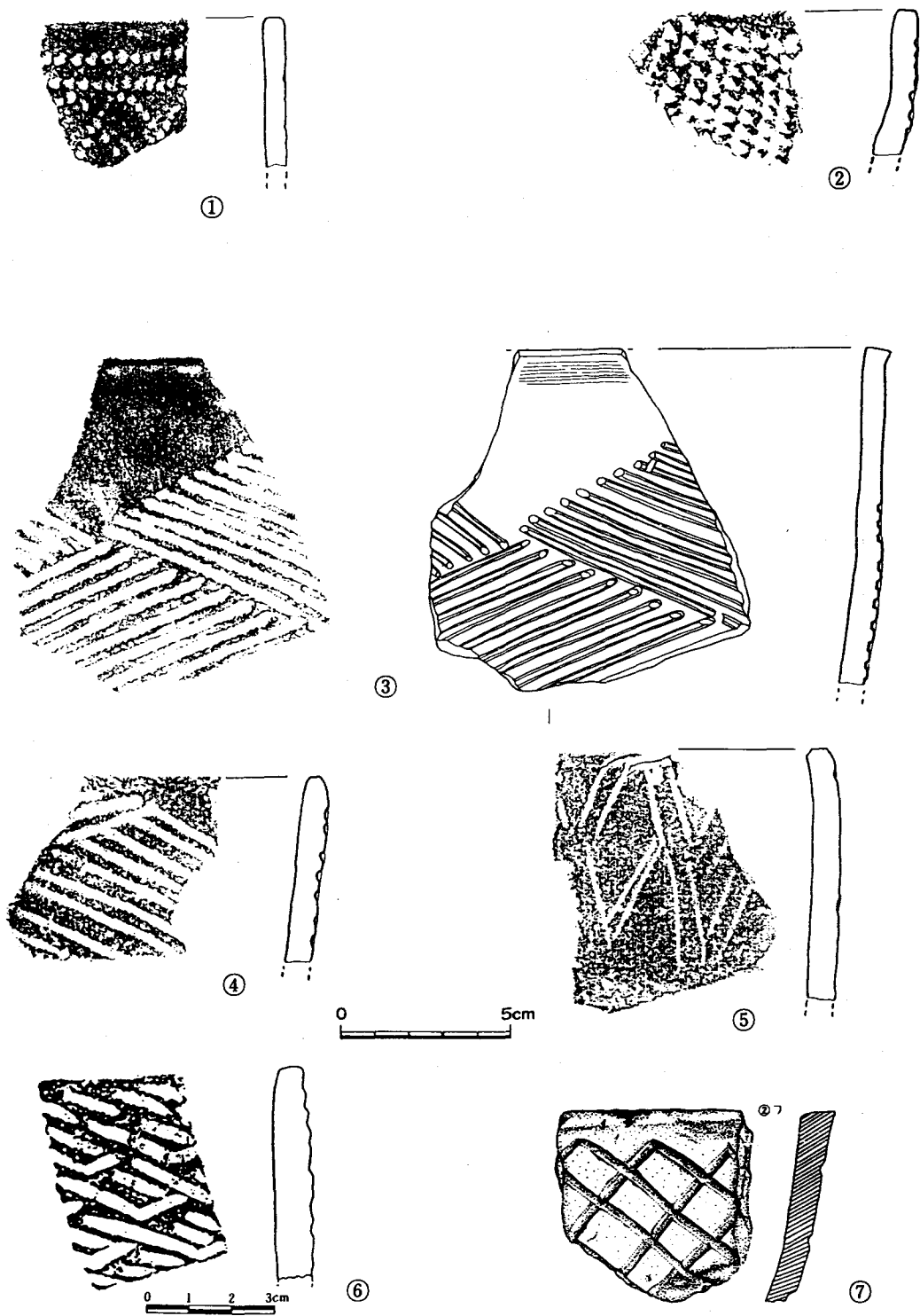
圖面 2. 嶺南內陸地方 Ia類 櫛文土器

①~③, ⑤, ⑦: 中村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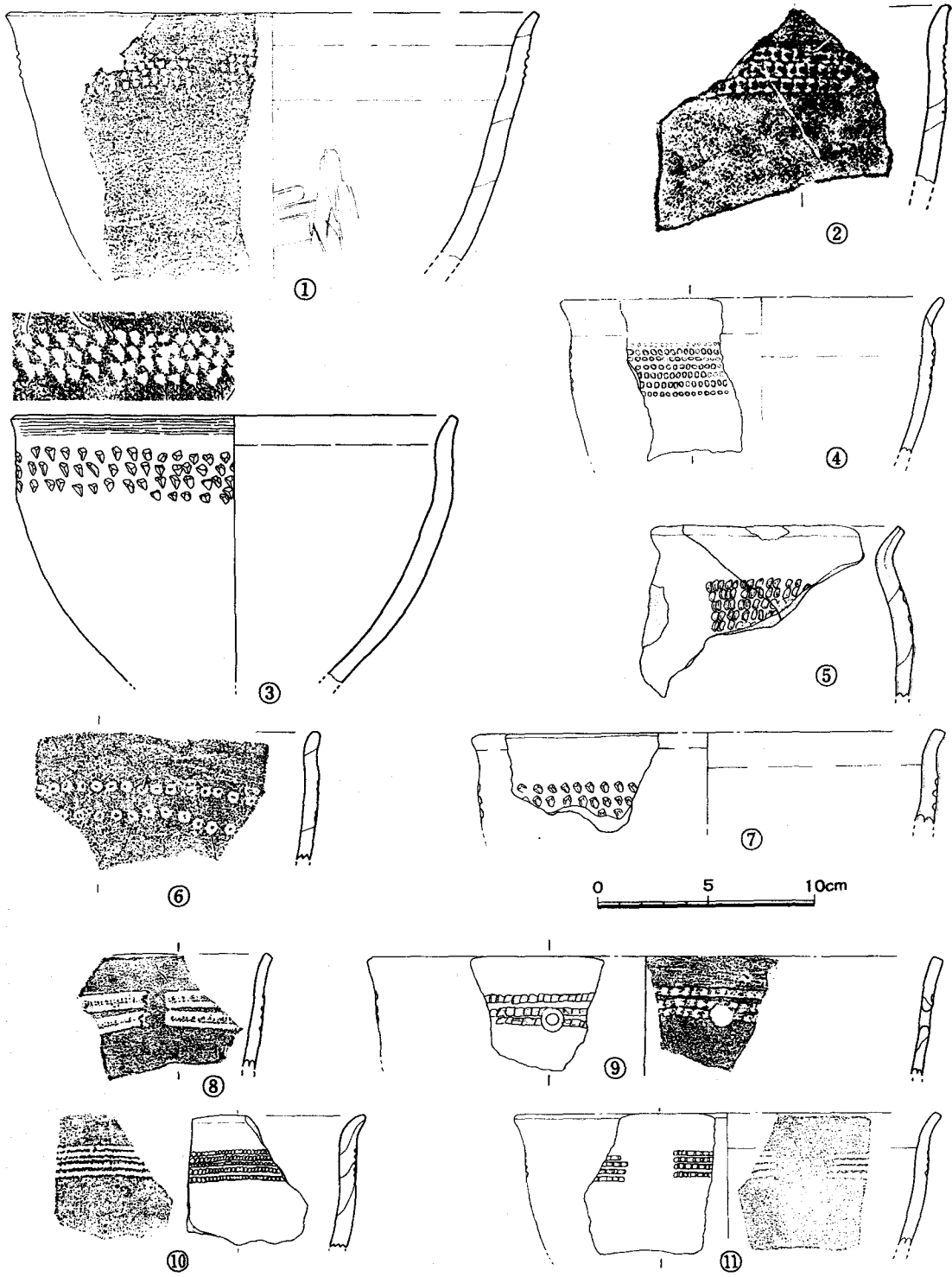
④, ⑧, ⑨: 鳳溪里

⑥: 牧島里

<縮尺: 1/2, 1/3>



圖面 3. 嶺南內陸地方 Ib類(①, ②) 및 Ic類(③~⑦) 櫛文土器
 ①, ②, ⑤, ⑥: 中村洞 ③: 大也里 ⑥: 江樓里 ⑦: 沙坪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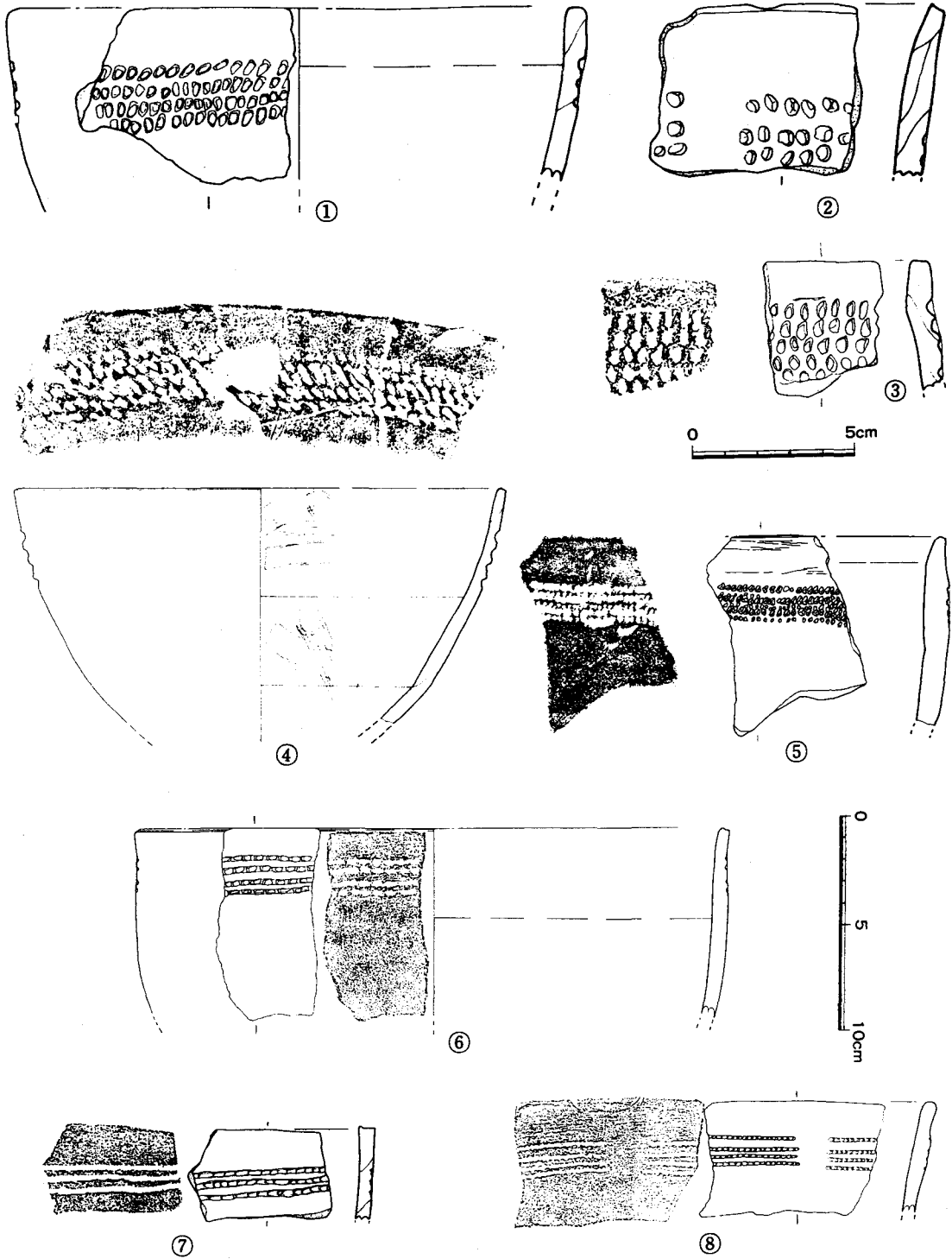
圖面 4. 嶺南內陸地方 II b類 櫛文土器

①, ②: 壬佛里

③: 大也里

<縮尺: 1/3>

④~⑫: 鳳溪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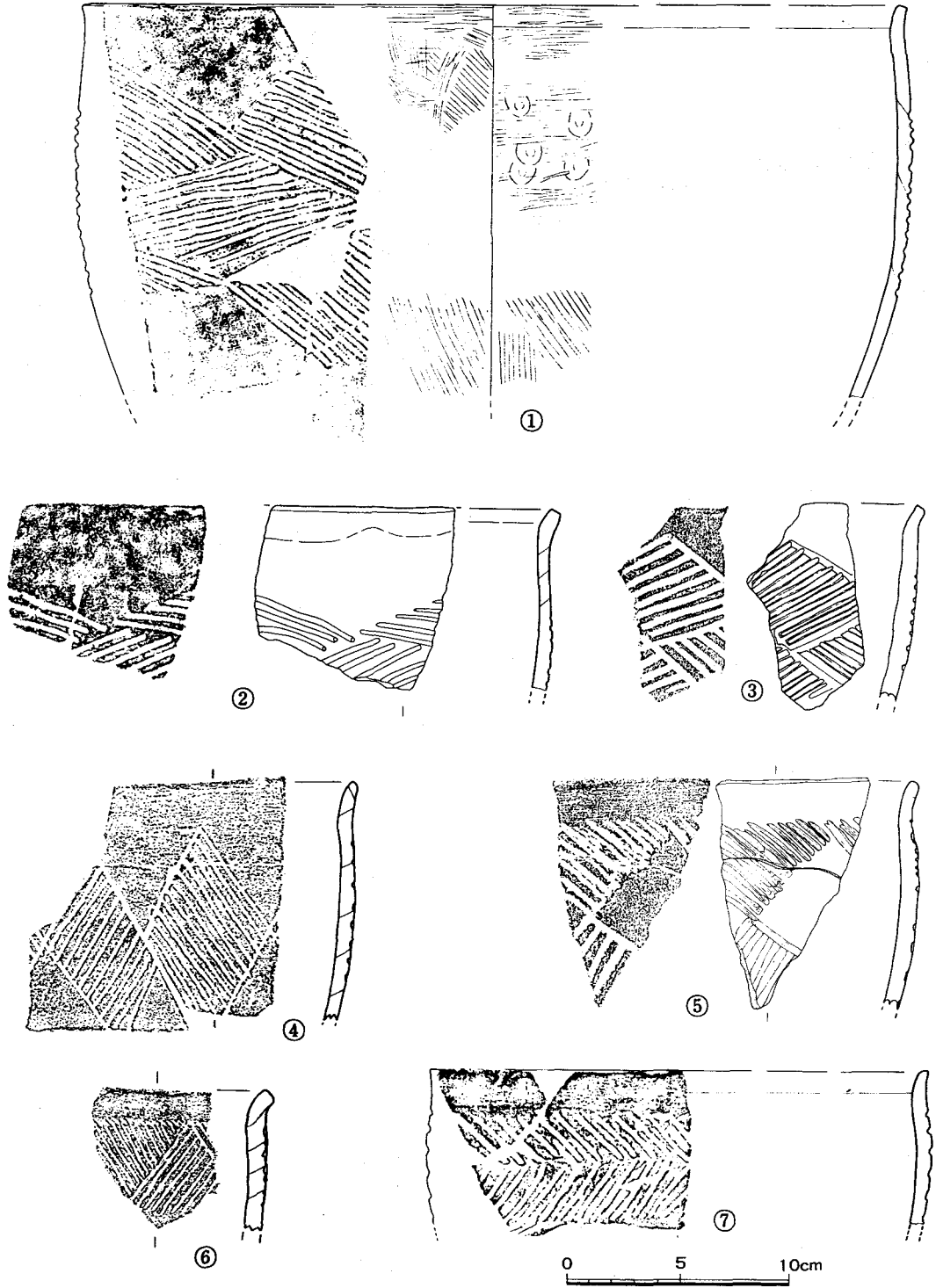


圖面 5. 嶺南內陸地方 IIIb類 櫛文土器

①~③, ⑥~⑧: 鳳溪里 ④: 壬佛里

<縮尺: 1/2, 1/3>

⑤: 大也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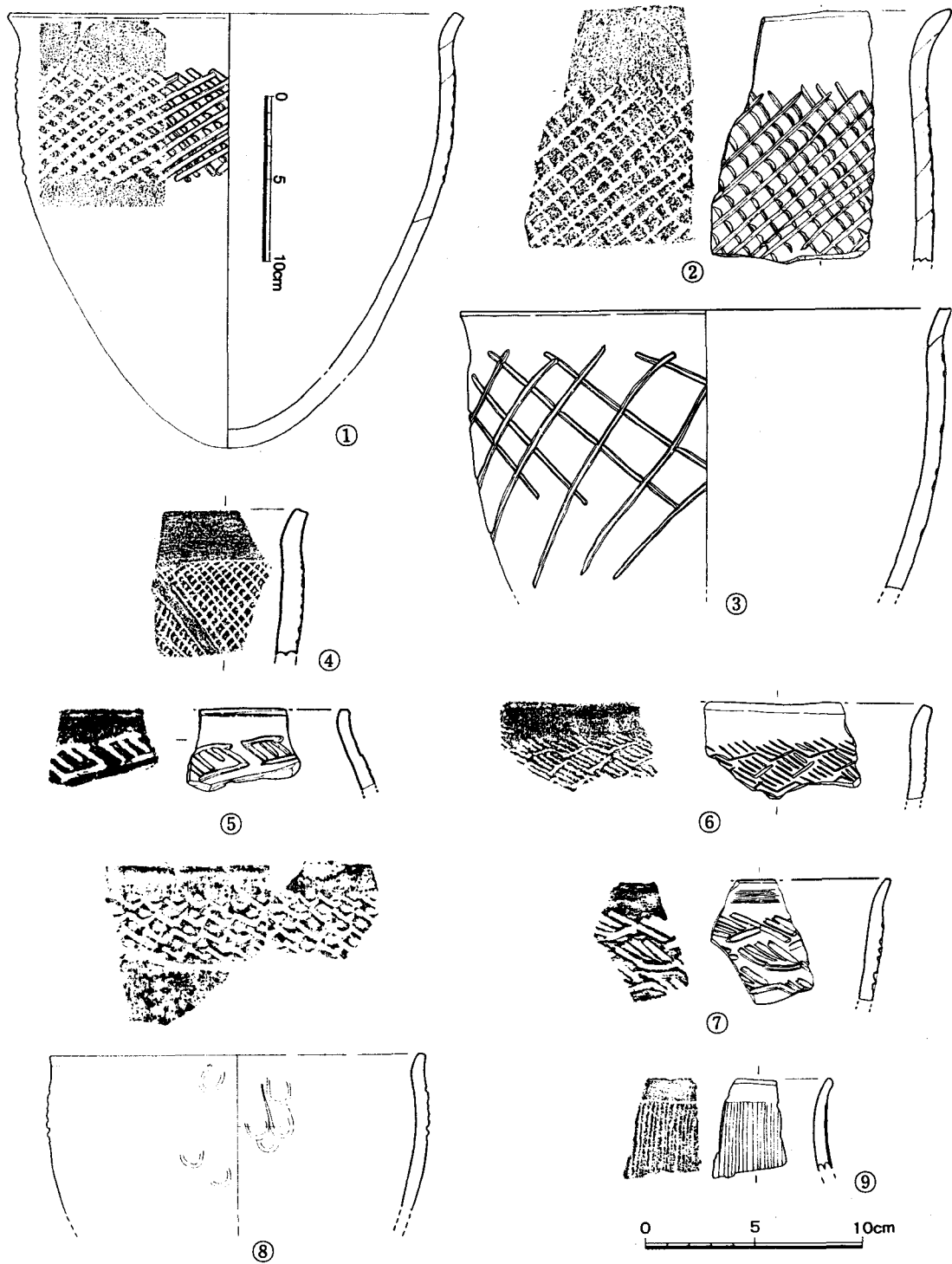
圖面 6. 嶺南內陸地方 IIc類 櫛文土器

①, ⑦: 壬佛里

②: 大也里

③~⑥: 鳳溪里

<縮尺: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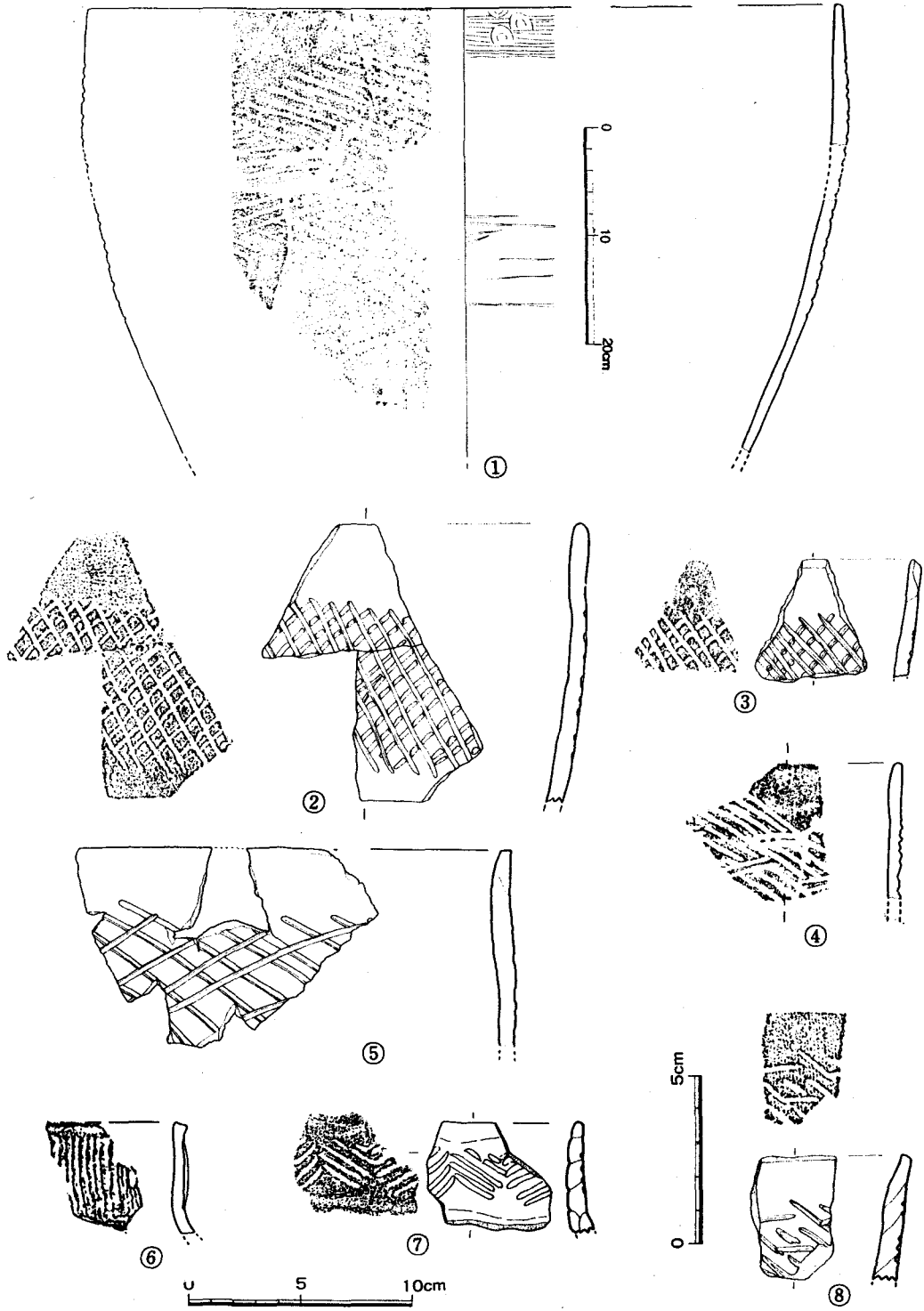
圖面 7. 嶺南內陸地方 IIc類 櫛文土器

①, ②, ④, ⑨: 鳳溪里

③, ⑤~⑦: 大也里

⑧: 壬佛里

<縮尺: 1/3, 1/4>



圖面 8. 嶺南內陸地方 III c類 櫛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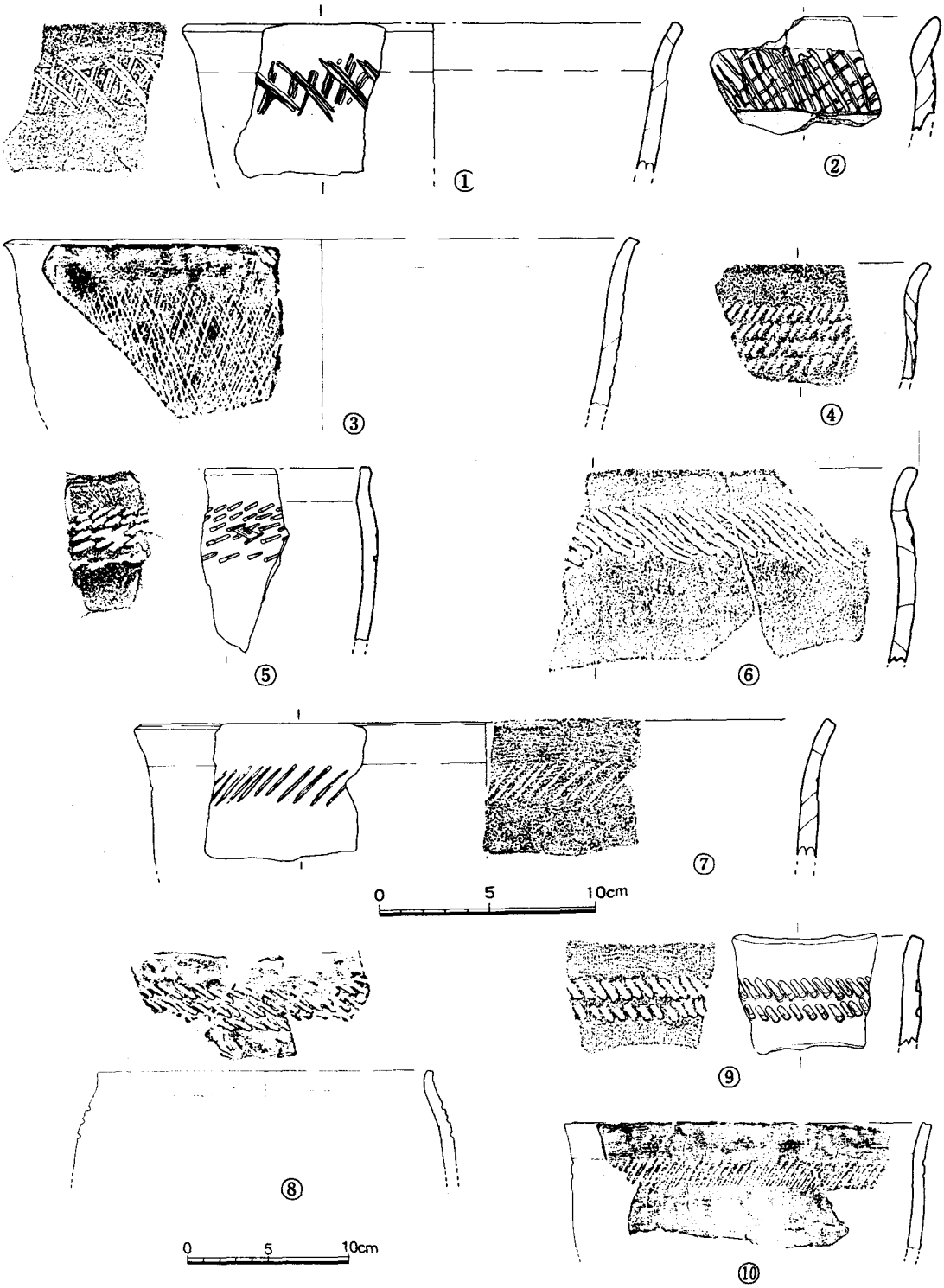
①, ④: 壬佛里

②, ③, ⑦, ⑧: 鳳溪里

⑤: 大也里

⑥: 中村洞

<縮尺: $\frac{1}{2}$, $\frac{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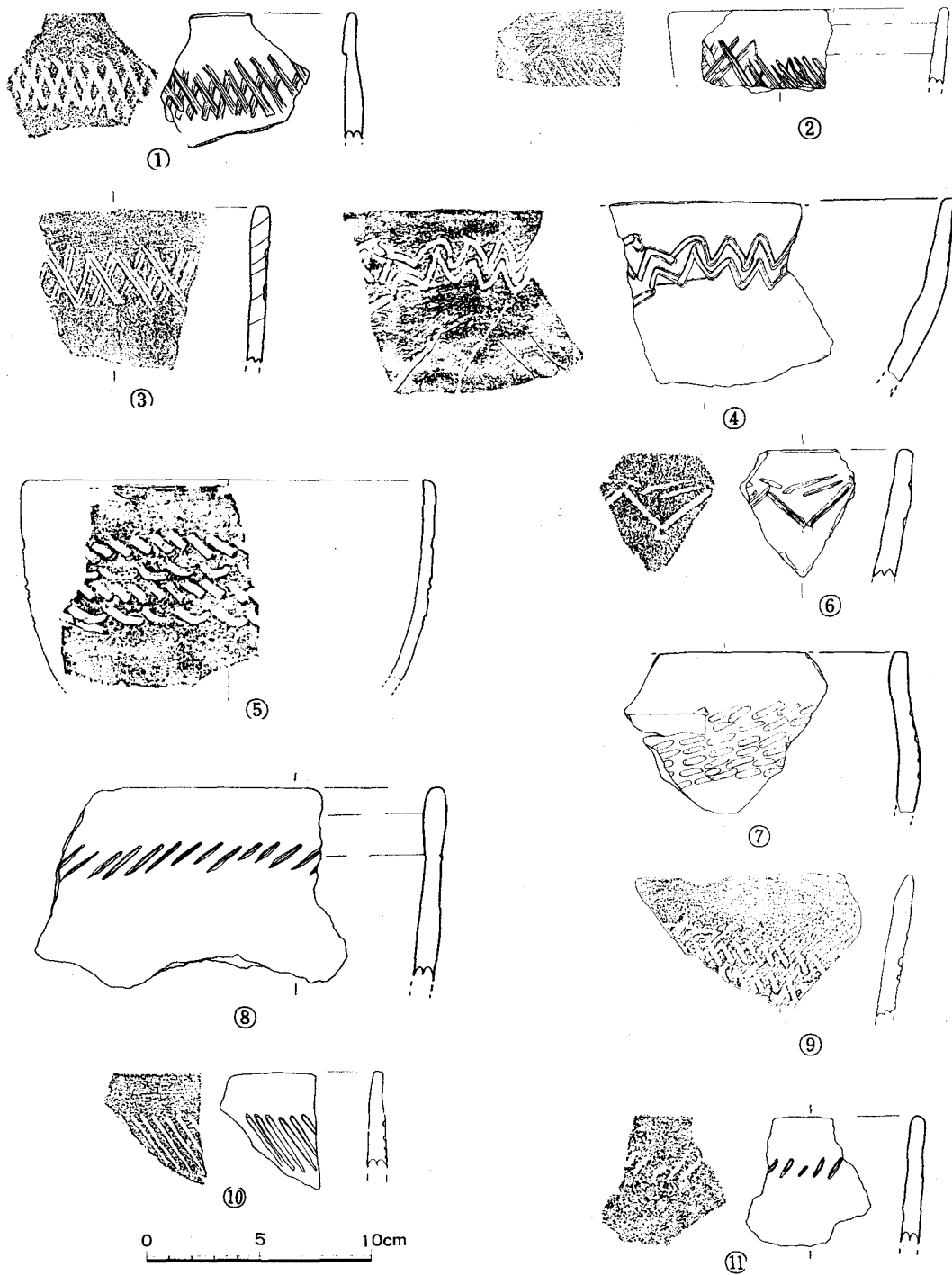
圖面 9. 嶺南內陸地方 II d類 櫛文土器

①, ②, ④, ⑥, ⑦, ⑨: 鳳溪里

③, ⑧, ⑩: 壬佛里

<縮尺: 1/3, 1/4>

⑤: 大也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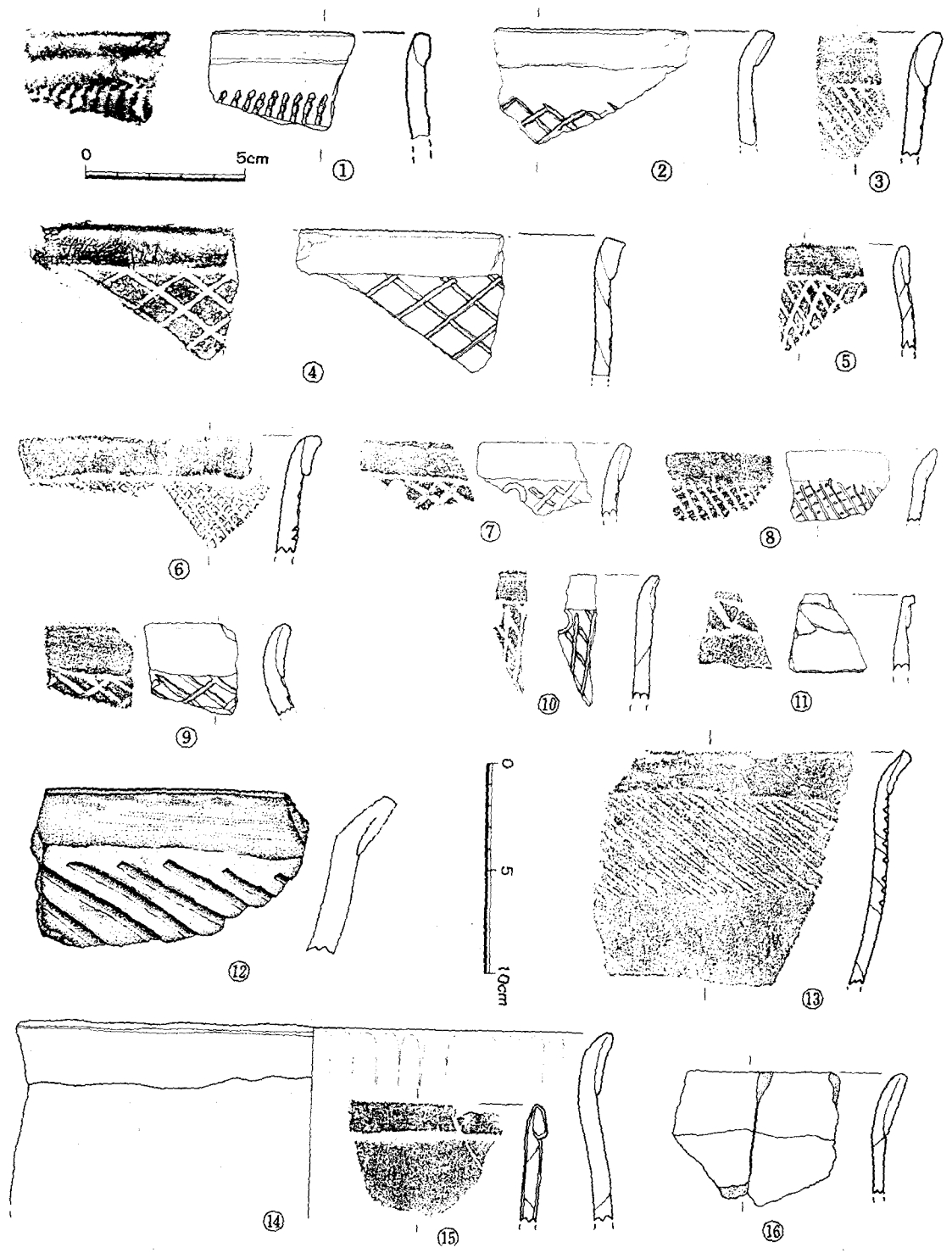
圖面 10. 嶺南內陸地方 III d類 櫛文土器

①~③, ⑥, ⑧~⑪: 鳳溪里

④, ⑦: 大也里

⑤: 壬佛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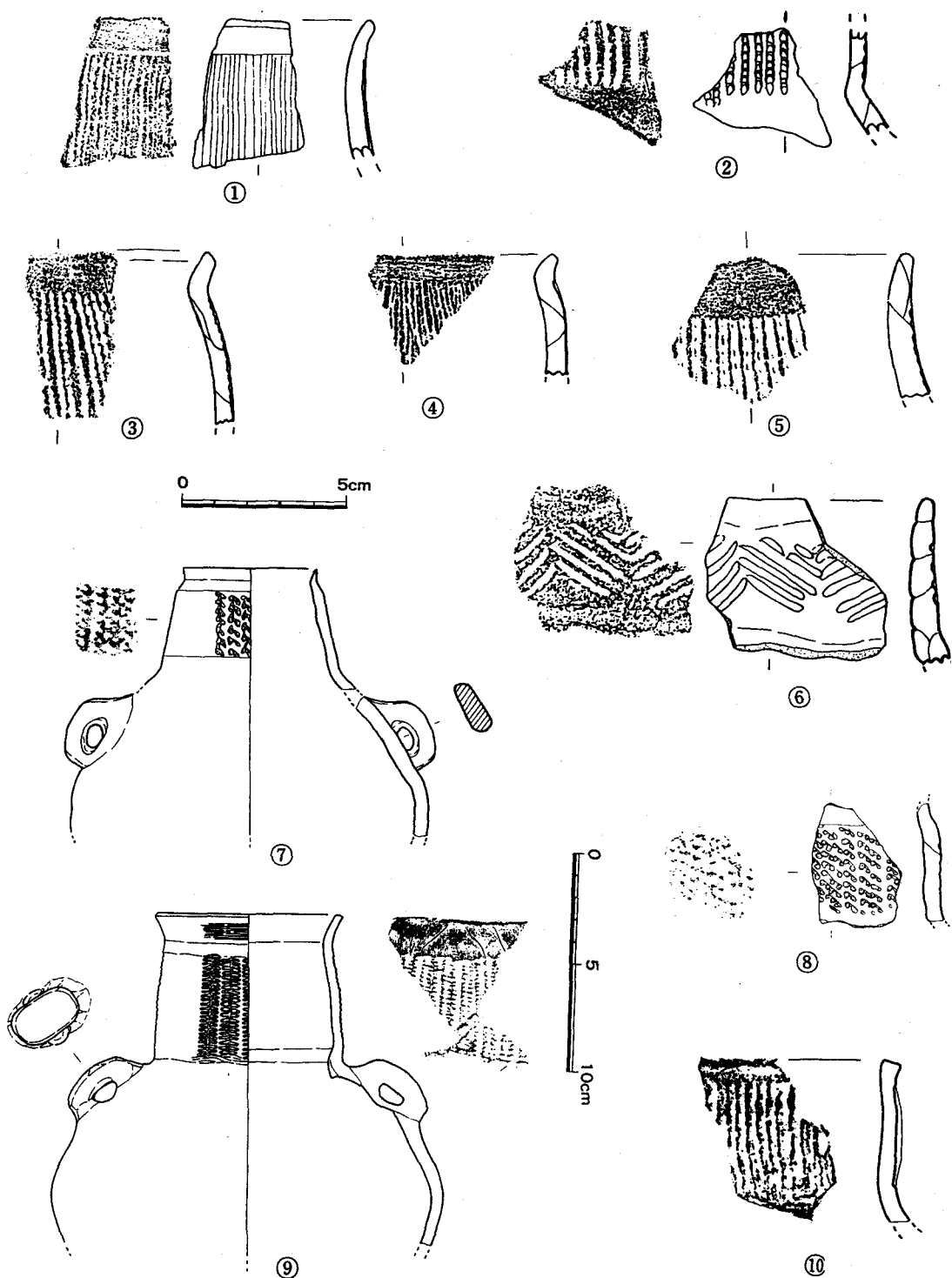
<縮尺: 1/3>



圖面 11. 嶺南內陸地方 IV類 櫛文土器

①, ② : 中村洞 ③, ⑤~⑪, ⑬~⑯ : 鳳溪里 ④ : 大也里 ⑫ : 沙坪洞

<縮尺 :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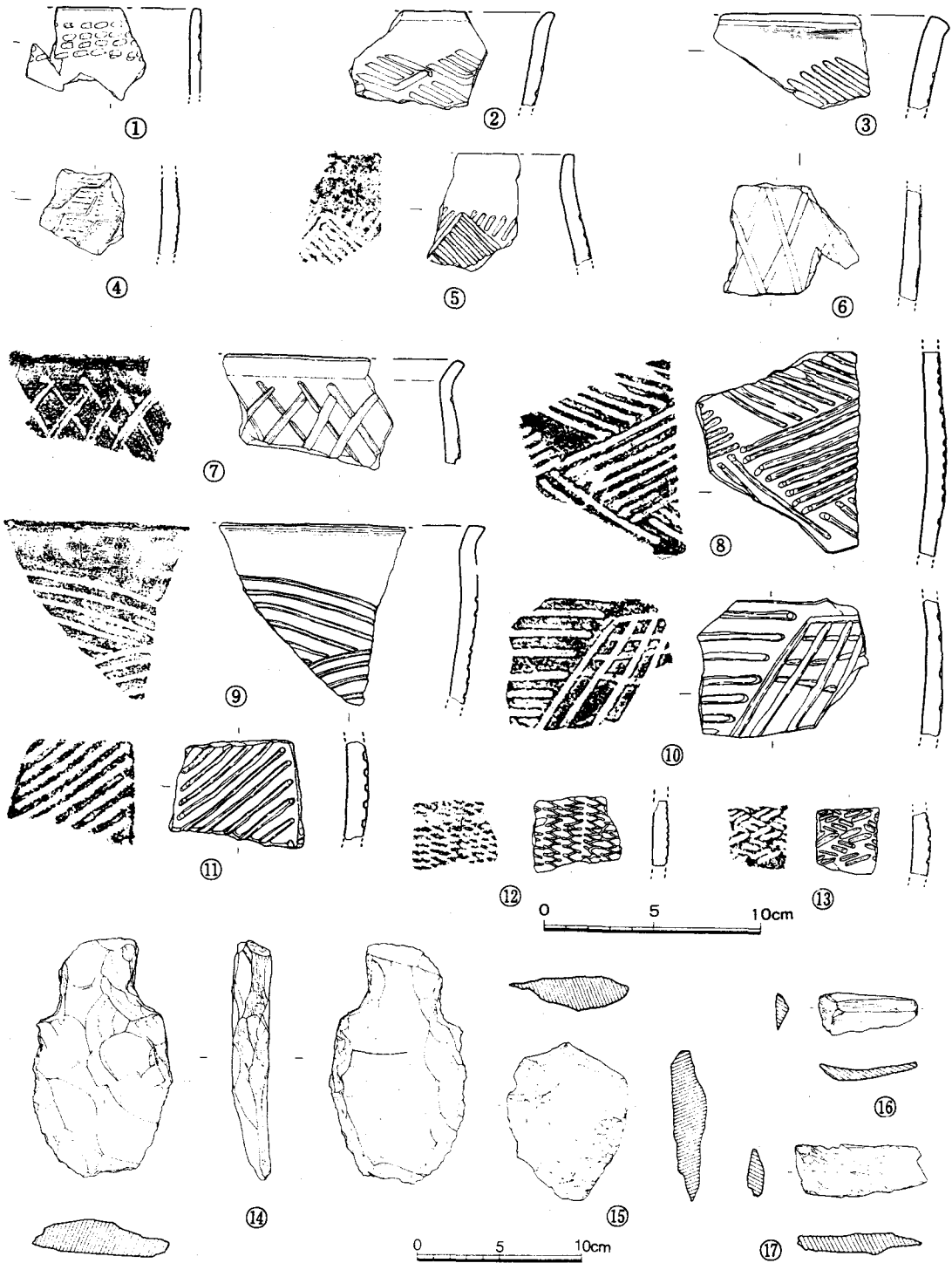
圖面 12. 嶺南內陸地方 出土 壺形 櫛文土器

①~⑥: 鳳溪里

⑦~⑨: 大也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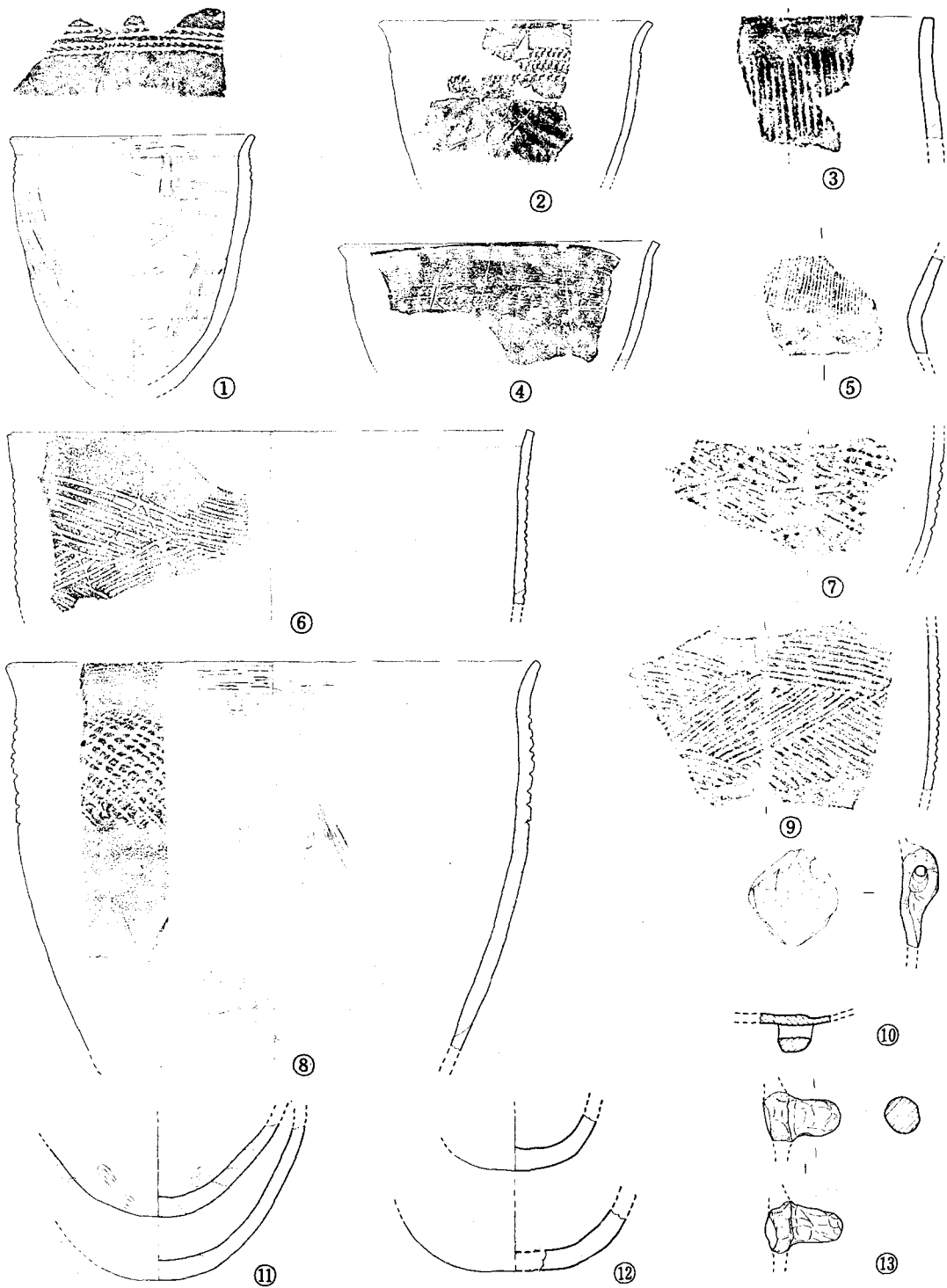
<縮尺: $\frac{1}{2}$, $\frac{1}{3}$ >

⑩: 中村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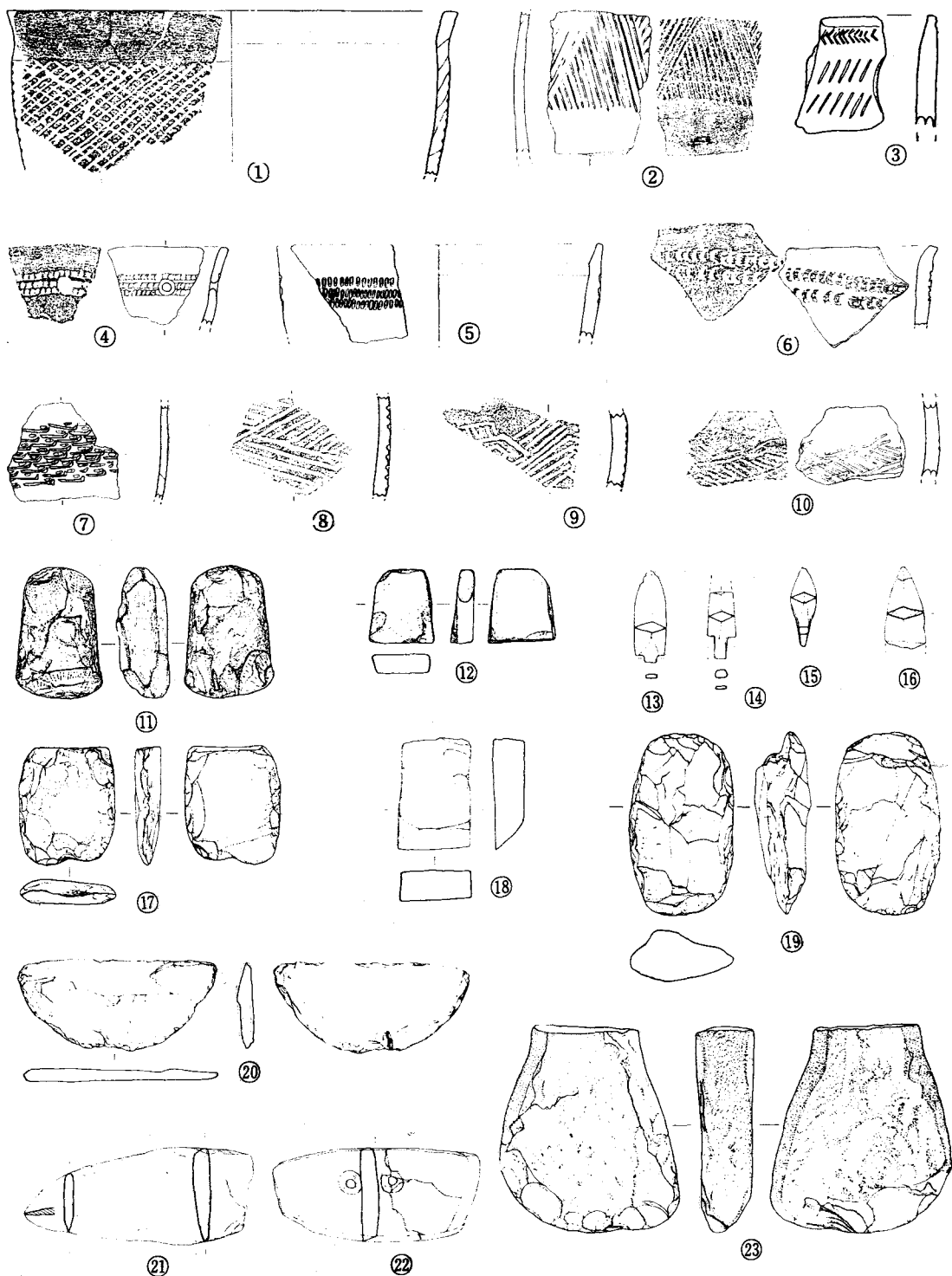
圖面 13. 居昌 大也里 遺蹟 出土 遺物

<縮尺： $\frac{1}{3}$, $\frac{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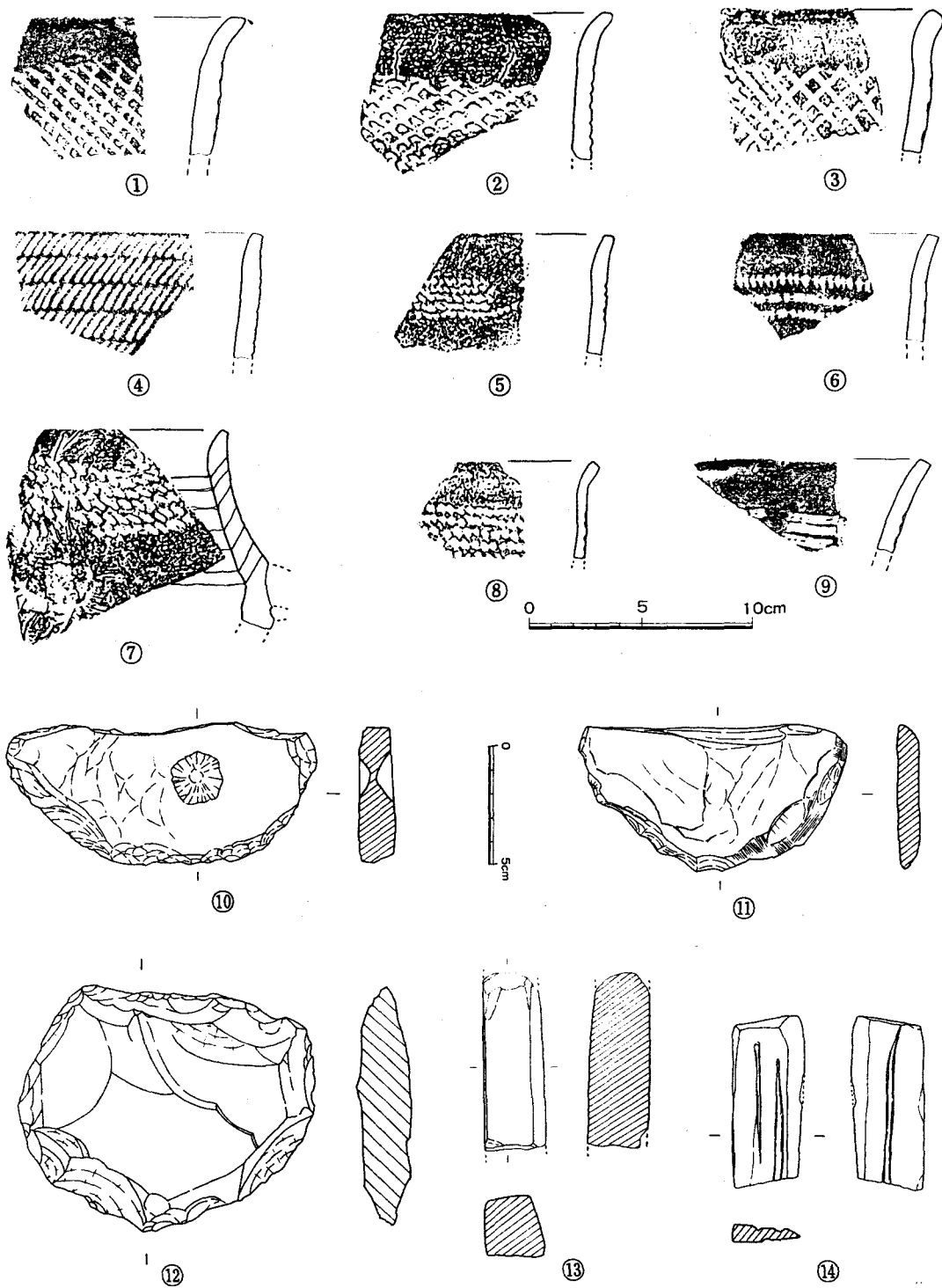
圖面 14. 居昌 壬佛里 遺蹟 出土 遺物

<縮尺：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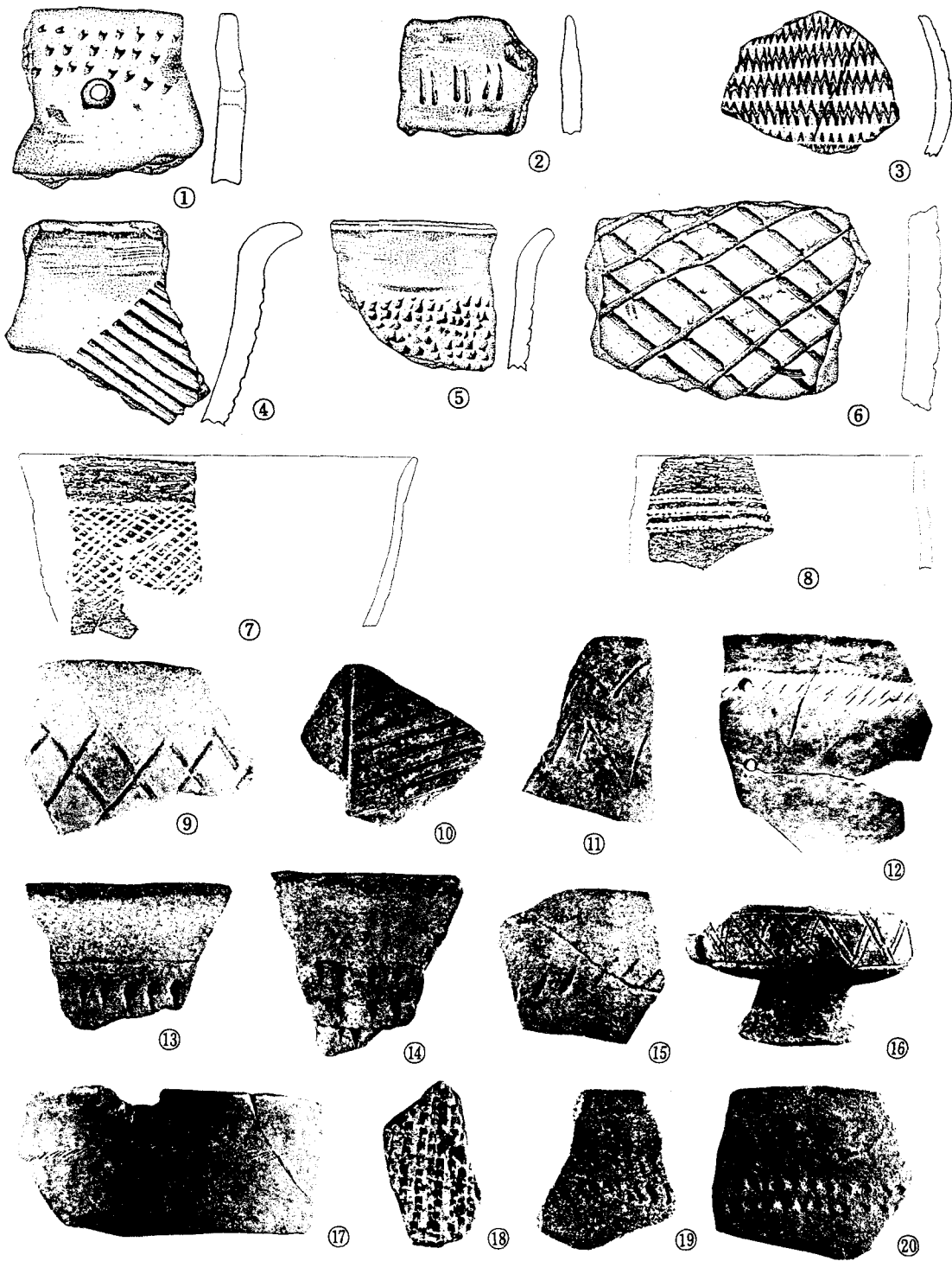
圖面 15. 陝川 鳳溪里 遺蹟 出土 遺物

<縮尺：不同>



圖面 16. 晉陽 上村里 中村洞 遺蹟 出土 遺物

<縮尺： $\frac{1}{3}$, $\frac{1}{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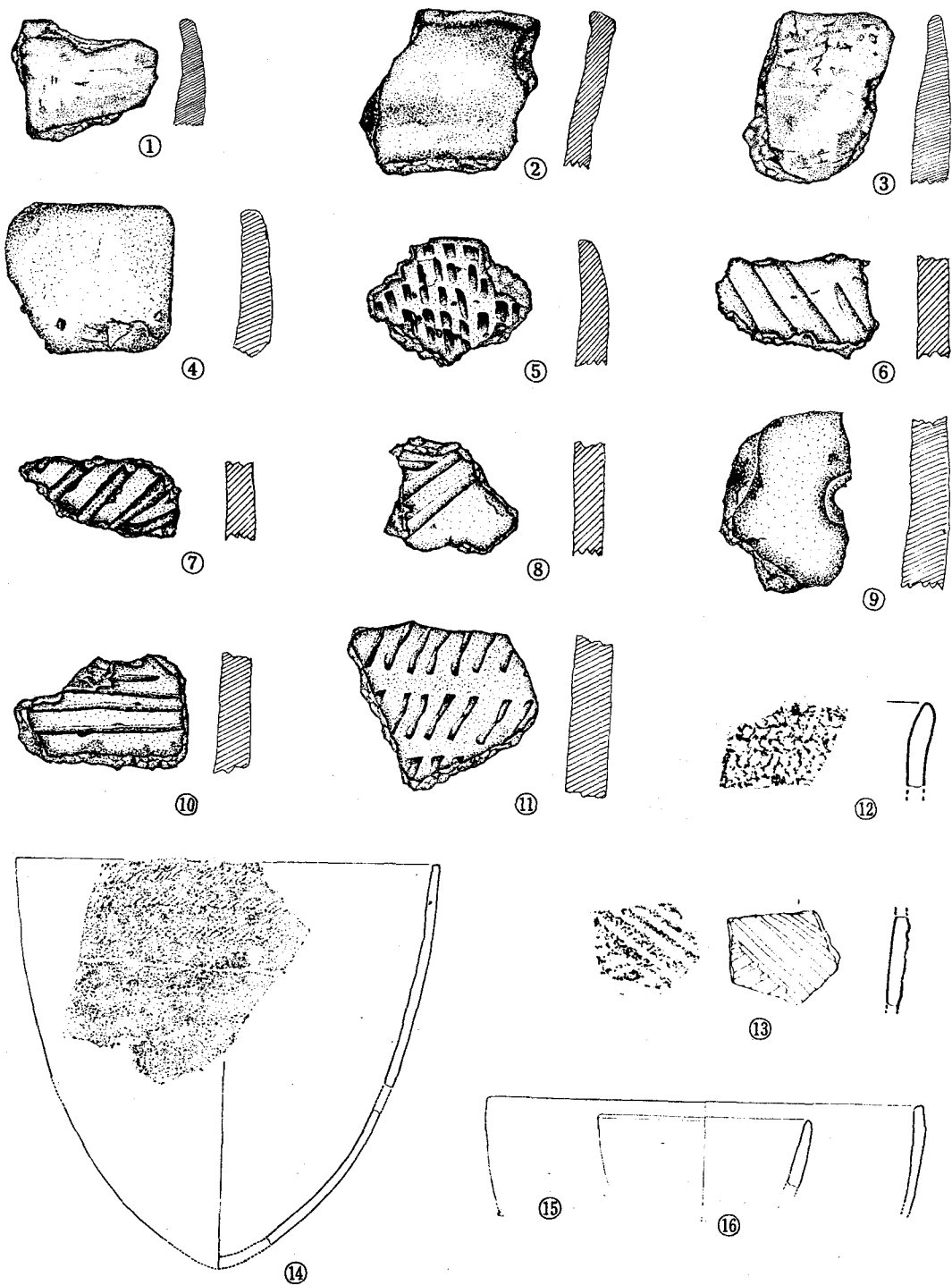
圖面 17. 山清 沙坪洞, 江樓里, 泗川 舊坪里 遺蹟 出土 遺物

①~⑥: 沙坪洞

⑦, ⑧: 江樓里

⑨~⑳: 舊坪里

<縮尺: 不同>



圖面 18. 牧島里, 鳥沙里, 玉宗面 一帶 遺蹟 出土 遺物

①~⑨: 牧島里

⑩, ⑪: 鳥沙里

⑬: 后坪

⑭: 황단

<縮尺: 不同>

⑫: 文岩里

⑮, ⑯: 떡발골

< 表 1 >

段階 時期			押引文系	刺突文系
第 I 段階	A	中期前半		
	B	中期後半		
第 II 段階	A	後期前半		
	B	後期後半		
第 III 段階	A	晚期前半		
	B	晚期後半		

嶺南內陸地方 出土 櫛文土器 編年表

沈線文系 退化沈線文系

